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CEECs)의 EU에 대한 인식과 평가

2024. 1. 25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Trade 학부)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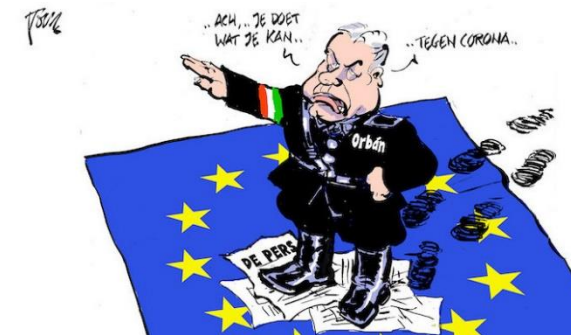
1. 문제 제기
2. EU 가입 이후 중동부 유럽의 변화
3. 중동부 유럽의 유럽회의주의
4. 거시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5.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6. 결론 및 후속 연구 방향

Ch. 1

- ▀ 문제 제기 (research questions)

문제 제기

- Brexit를 계기로 **유럽통합** (European integration)과 **국민국가**로써 **정체성** 간에 **갈등**이 부각
 - EU는 출범 이후 최초로 회원국 수가 감소
 - 브렉시트 결정은 EU 회원국 지위의 독실에 관한 정치적, 경제적 논란을 촉발
-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EU 회원국에 존재**
 - 일부 국가에서는 집권까지 가능한 **대안세력**으로 부상
 - 연정을 통해 집권하거나,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경우 발생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중동부유럽**에서도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당이 득세하거나, 집권 중
 - **헝가리**: 오르반 총리 (Viktor Mihály Orbán), 유럽회의주의적 행보로 EU 집행부와 갈등
 - 사법과 언론 분야에서 EU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는 국내법 제정 추진, 친러, 친중 성향
 - **폴란드**: 우파 성향의 '법과 정의당 (Prawo i Sprawiedliwość)'의 우경화 현상
 - CJEU, 폴란드 정부에 사법부 독립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벌금 부과 판결. EU 차원의 경제회복기금(NGEU) 지급의 유보 가능성 제기
 - 총선(23.10.15) 결과 **시민 연단(PO: Platforma Obywatelska)** 주도의 연정 구성(12.13)
 - **체코, 슬로바키아**: 온건한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연정을 통해 집권, 극우정당 득표율 상승



문제 제기

- EU 연구(European Studies)의 지배적 시각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EU 가입의 수혜자로 간주
 - 정치적 관점:
 - EU 가입은 민주화 과정에 강력한 안전장치로 작용
 -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소요와 부패를 최소화
 - 집단안보 체제로서 NATO는 소국들이 갖고 있던 안보 불안을 일정 부분 불식시킴
 - EU 운영체제에 있어 인구 규모가 작은 국가에게 유리한 소국 배려 원칙 적용
 - 경제적 관점:
 - CEECs는 장기간에 걸쳐 EU 예산의 순 수혜국
 - 모든 CEECs는 국민총소득(GNI)의 2% 상회해서 수혜. 헝가리는 5%(2018)
 - 4대 이동의 자유에 따른 노동 이민 자유화 (CEECs → 서유럽)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 산업화 → 수출중심 경제로 탈바꿈 → 견조한 경제성장 → 소득 수렴



문제 제기

- 반면에 CEECs를 신규 가입국으로 보는 시각은 **내부 정치 환경과 여론의 변화를 간과**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
 - 중동부유럽에서 **EU 통합**과 **국민주권 국가** 간의 갈등
 - 경제위기 이후 대두되는 **자국중심주의 확산 현상**
 - **EU에 대한 신뢰/지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변화의 원인을 분석
- 중동부유럽 국가의 유럽회의주의를 논의하고,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럽회의주의의 결정요인을 분석**
 - 국가 단위의 데이터(macro-level data)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2021년 후반 연구 진행)
 - 강유덕.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거시 데이터를 통한 결정요인 분석.**” 통합유럽연구 13(1), 2022년 3월
 - 개인 단위의 데이터(micro-level data) 분석으로 확장(2022년 후반 연구 진행)
 - 강유덕.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시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동유럽발칸연구 47(1), 2023년 2월
-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 EU에 대한 평가를 연구(2023년 하반기 진행)
 - 김윤정·이철원·오태현·김초롱·강유덕.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2023년 KIEP 연구보고서. 현재 교열 작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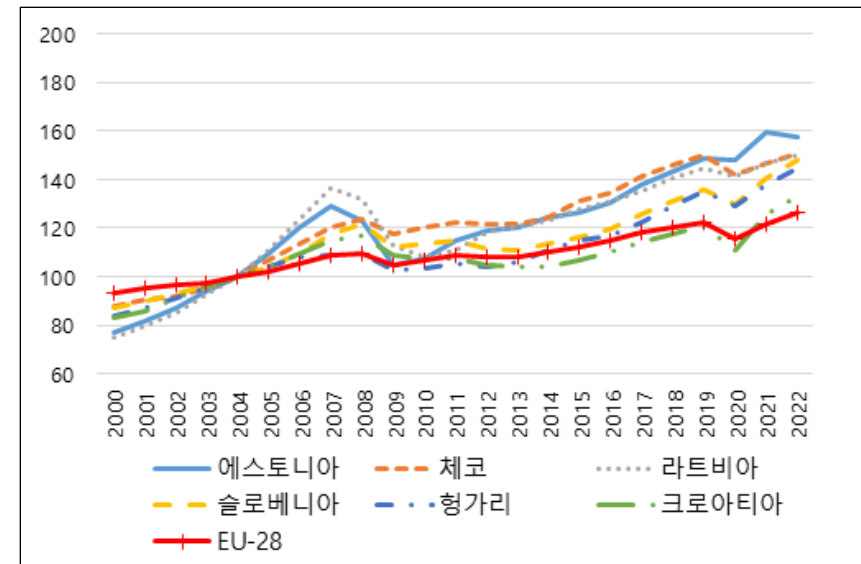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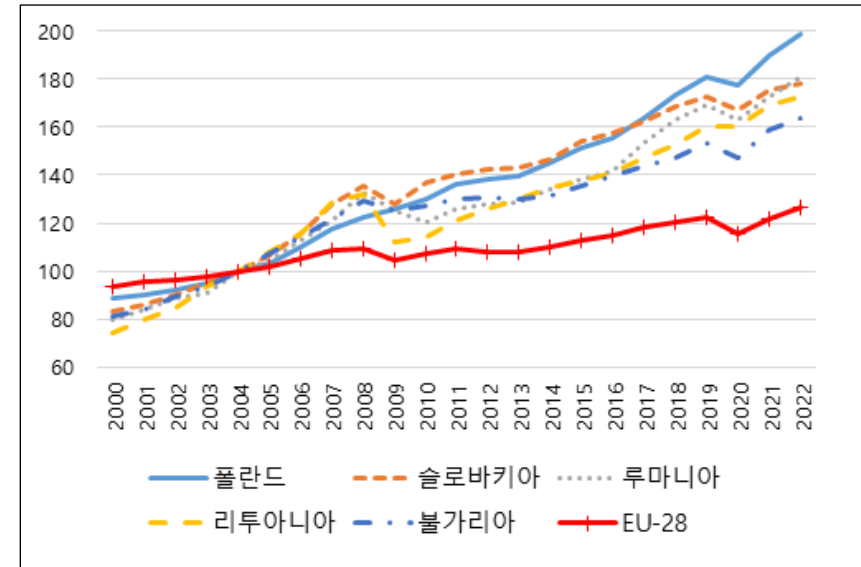
Ch. 2

▀ EU 가입 이후 중동부 유럽의 변화

EU 가입 이후 경제적 변화

- EU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서유럽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 2000~08년의 기간 중 서유럽(EU-15)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81%**, 중동부유럽 10개국(CEEC-10)은 **4.84%**
 - 2004~19년의 기간 중 EU-15는 연평균 **1.25%**, CEEC-10은 연평균 **3.30%** 성장
 -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는 2004~19년의 기간 중 각각 4.01%, 3.69%, 3.18%의 성장률을 기록, **경제규모가 70% 이상 증가**
 - **에스토니아와 체코**도 같은 기간 2.75%와 2.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경제규모가 약 50% 성장**
 - 같은 기간 EU-15의 경제규모는 약 20% 증가, CEEC-10은 6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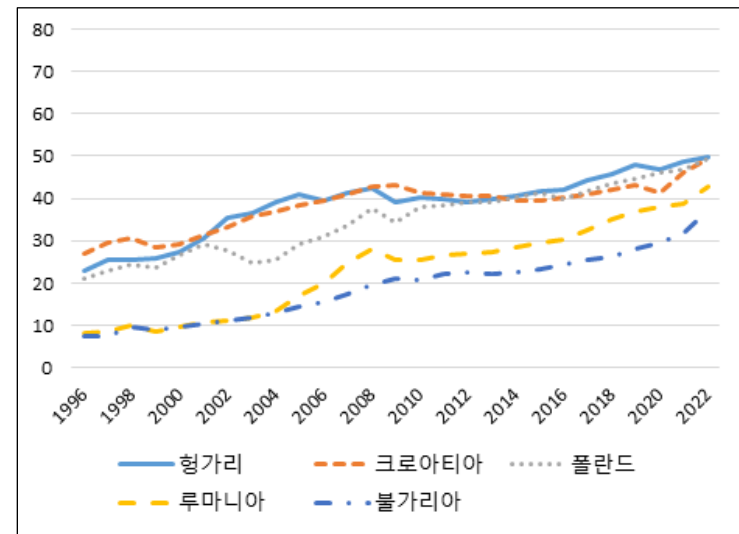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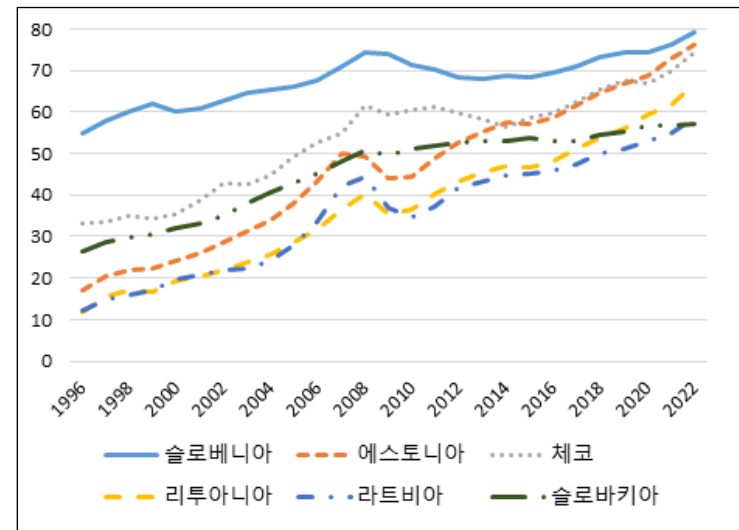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GDP 변화 추이
(2004년=100)



EU 가입 이후 경제적 변화

-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1인당 GDP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EU 평균과 수렴(convergence)** 현상 진행
 - 2004년 CEEC-10의 1인당 GDP는 7,220달러, **EU 평균의 27.5%**
 - 2022년에는 19,375달러, **EU 평균의 52.2%**
 -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EU 수준의 50%를 상회하고, 폴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는 50%에 근접
 -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는 2022년 29,457달러, 28,333달러, 27,638달러 기록, **EU 평균의 약 74~79%**
 -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1인당 GDP를 상회
- 높은 성장의 배경
 -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 생산시설의 투자, 수출 증가**
 - 특히 FDI는 입지적 우위와 기초적인 산업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비셰그라드 4국에 집중** → **‘아일랜드형’ 경제구조**
 - 발트 3국의 경우 내수 확대를 통해 V-4와는 다른 성장 경로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소득 수렴
(EU-2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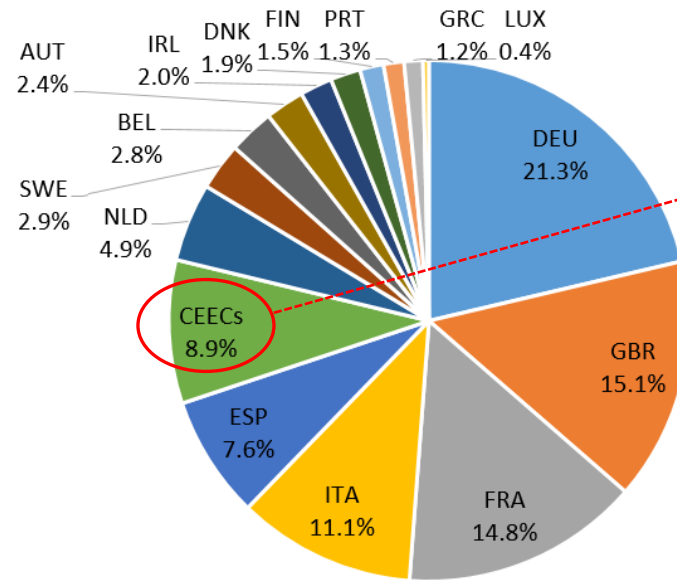


- EU(28개국 기준)에서 중동부유럽 국가(CEECs)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는 21.1%, 경제규모는 8.9%**

- 경제규모는 스페인보다 크고, 이탈리아보다 작은 규모
- 가장 큰 국가는 폴란드(2020년 인구 3,795 만명, GDP 5,966억 달러)
- 비세그라드 4국(2020년)
 - 경제규모: 1,103 (billion US\$), 한국 GDP의 약 67.3%(1,638)
 - 인구: 6,386만 명, 한국의 1.23 배(5,178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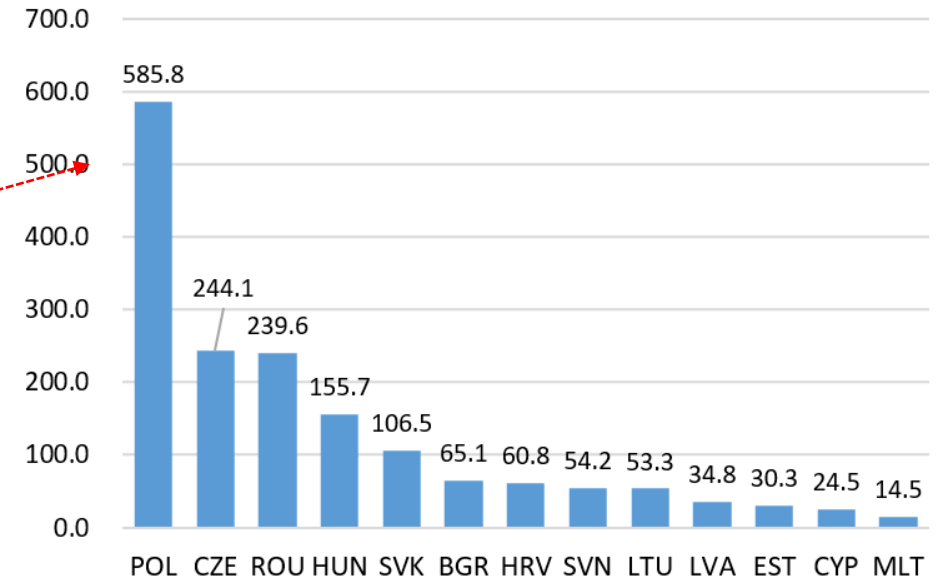
- 무역, 투자 측면에서 **EU 단일시장의 일부로 간주하고 접근**

GDP in the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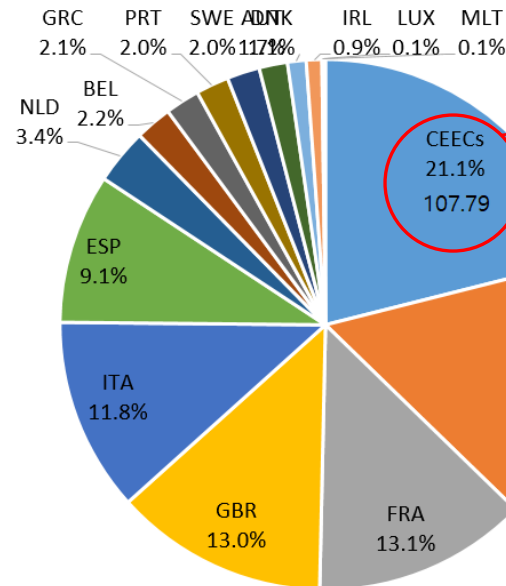


GDP of the CEECs

(Billion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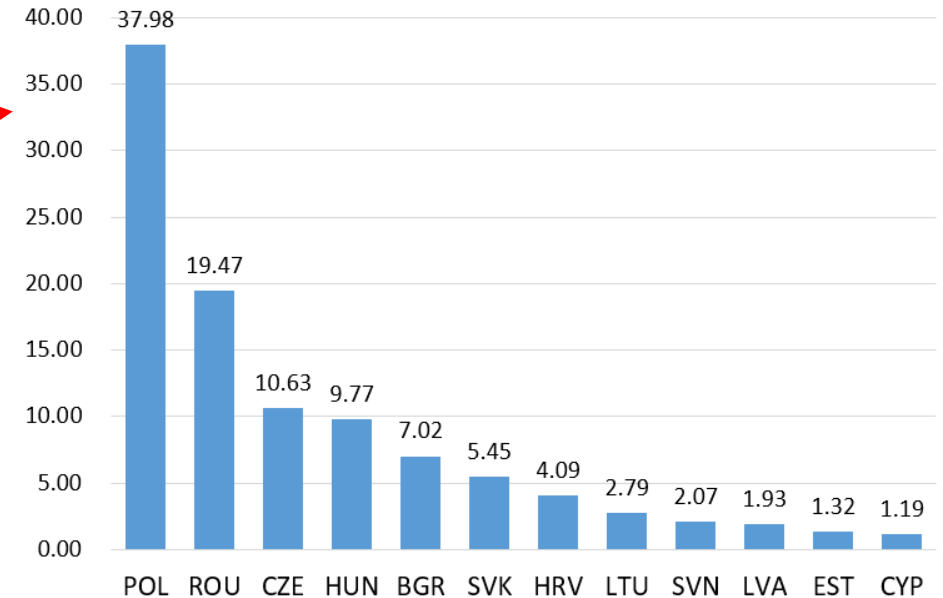


Population in the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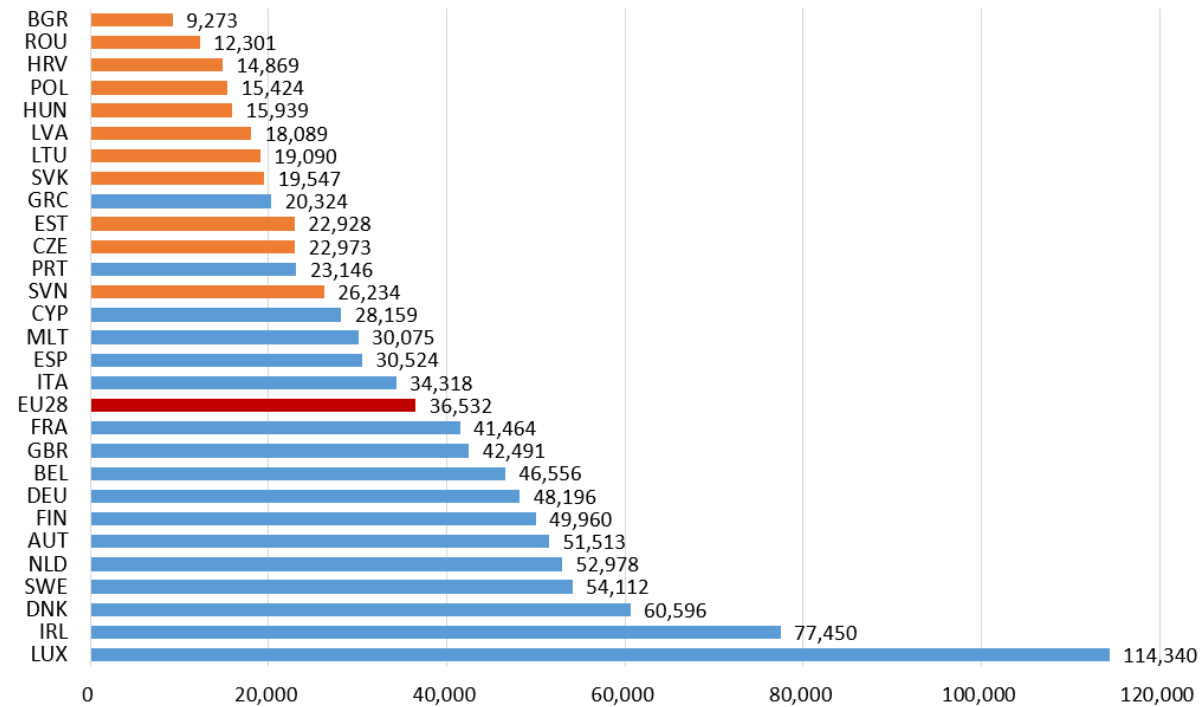


Population of the CEECs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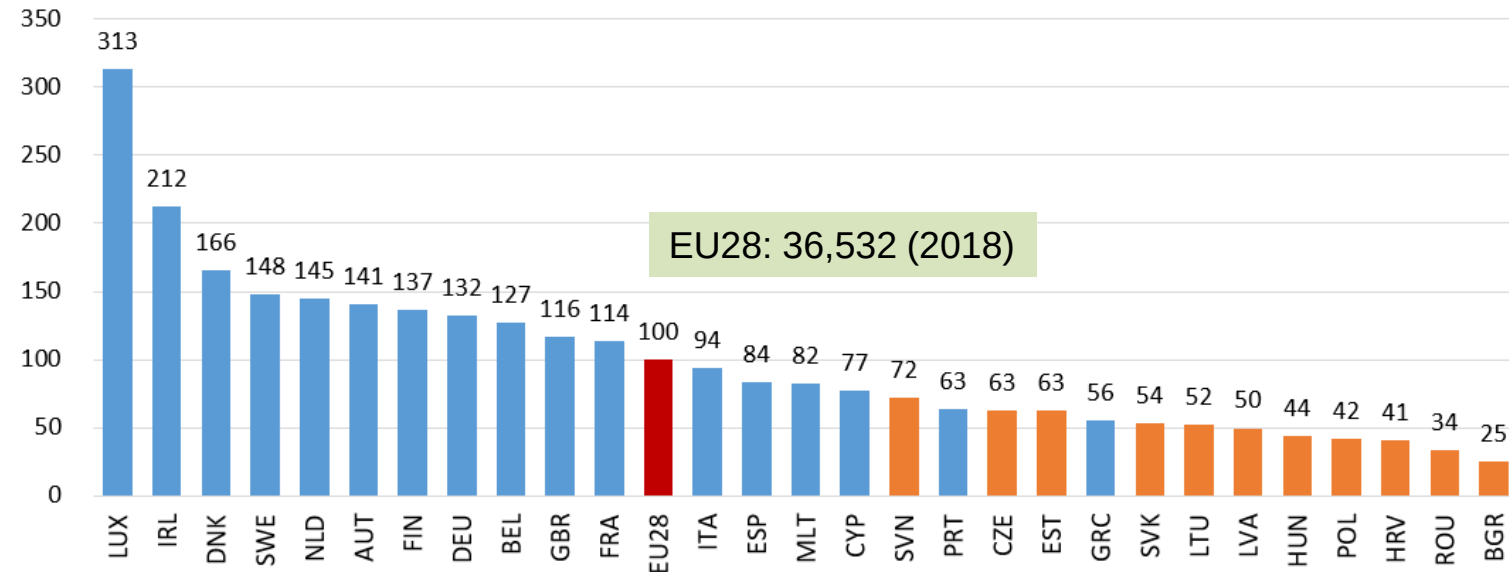


- 소득수준은 EU 평균을 하회
 - 가장 1인당 GDP가 큰 국가는 슬로베니아, 낮은 국가는 불가리아
 - 슬로베니아, 체코, 에스토니아는 2만 달러를 상회
 - 가장 경제규모/인구가 큰 폴란드는 \$15,720(2020년)
 - 제조업 생산시설이 V4 국가에 밀집된 주요 원인
- EU 역내에서 노동이동은 East → West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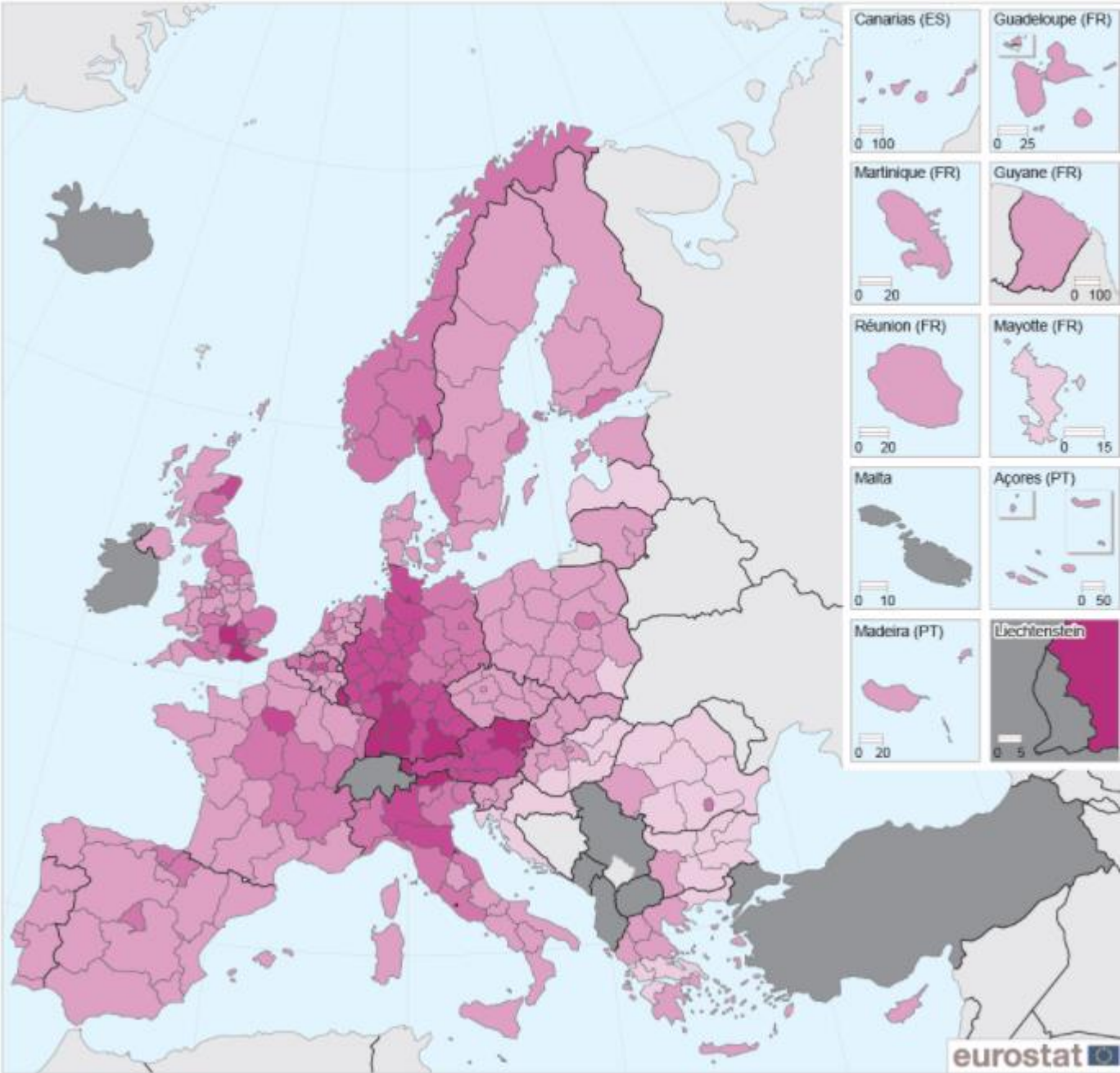


GDP per capita, US\$ (2018)

- Income level of the CEECs is still low than European average, however, some leading CEECs enjoy higher income level than their southern neighbours.
- Traditional labour movement in the EU: from East to West.



Disposable income per inhabitant, 2016
(purchasing power consumption standard (PP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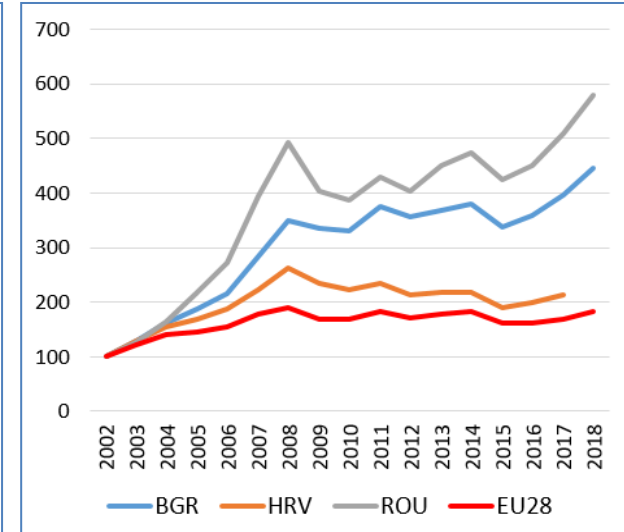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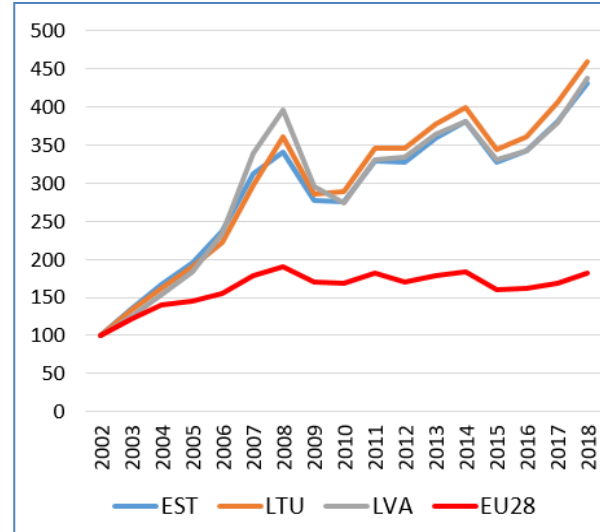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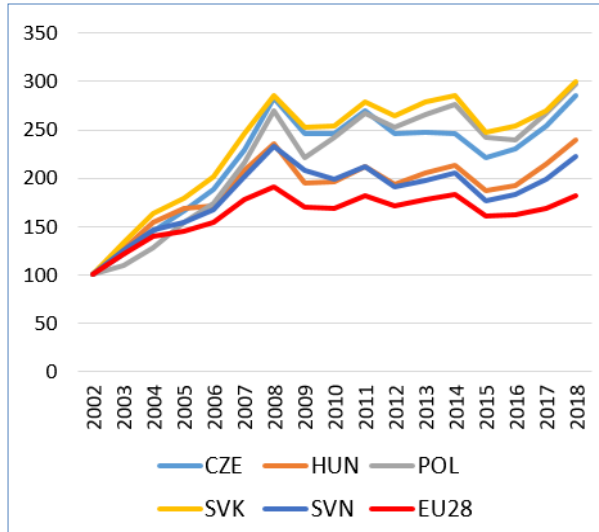


Administrative boundaries: © EuroGeographics © UN-FAO © Turkstat
Cartography: Eurostat — GISCO, 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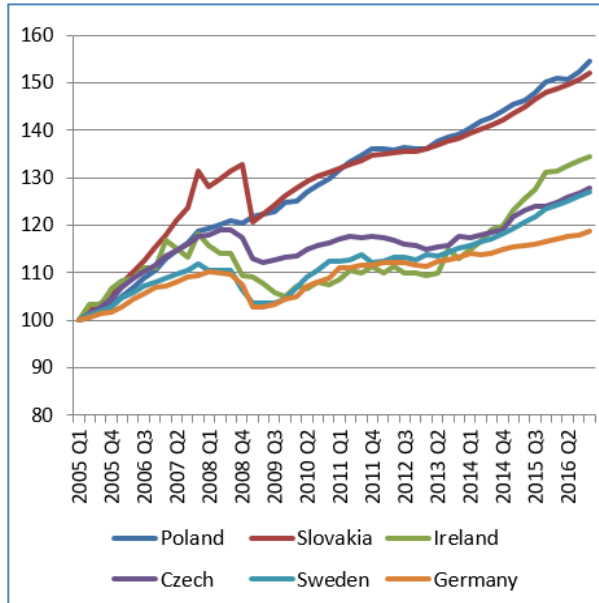
Development of GDP per capita of CEECs (2002=100)

- V4 국가들은 EU 평균의 성장률을 장기간 상회
- EU 회원국 중 V4 국가의 성장률이 장기간에 걸쳐 제일 높음. 소득수준은 EU 평균을 하회
- 높은 성장률의 배경에는
 - 외국인투자 유입
 - 산업생산, 수출 증가
 - EU 기금의 유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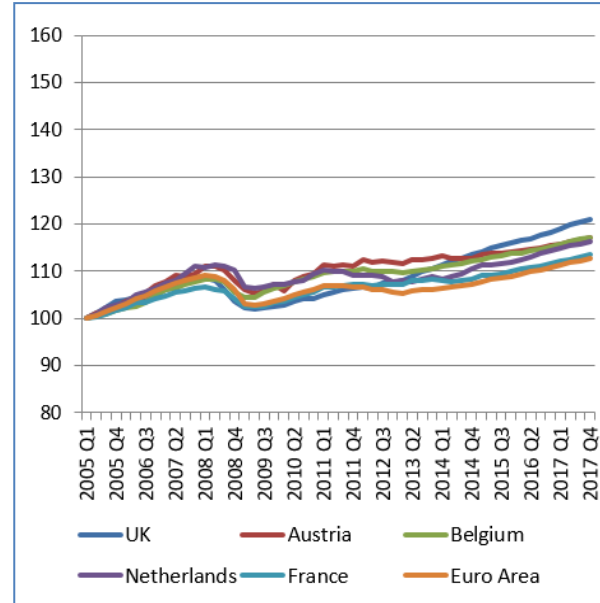


Development of GDP per capita after the Global Recession (2005 1st q=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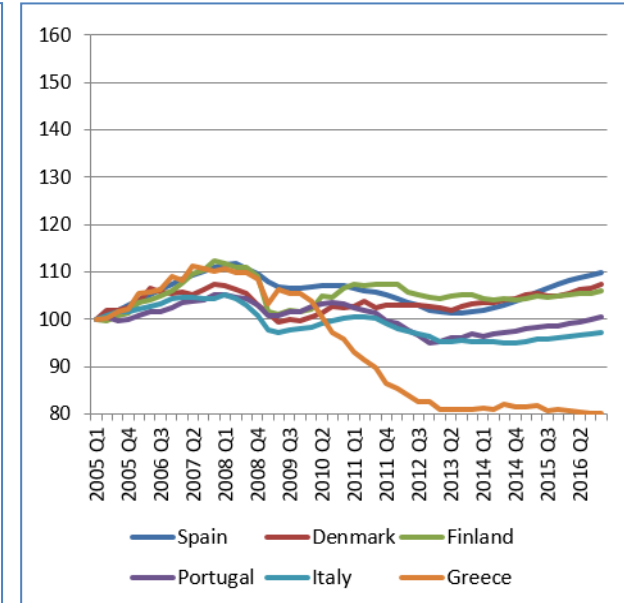
Countries with high growth rates



Countries with medium growth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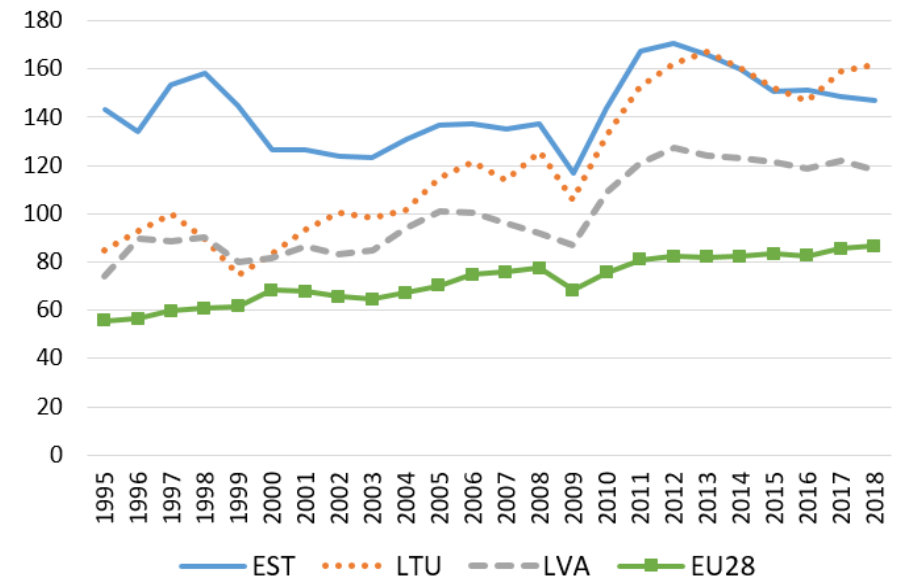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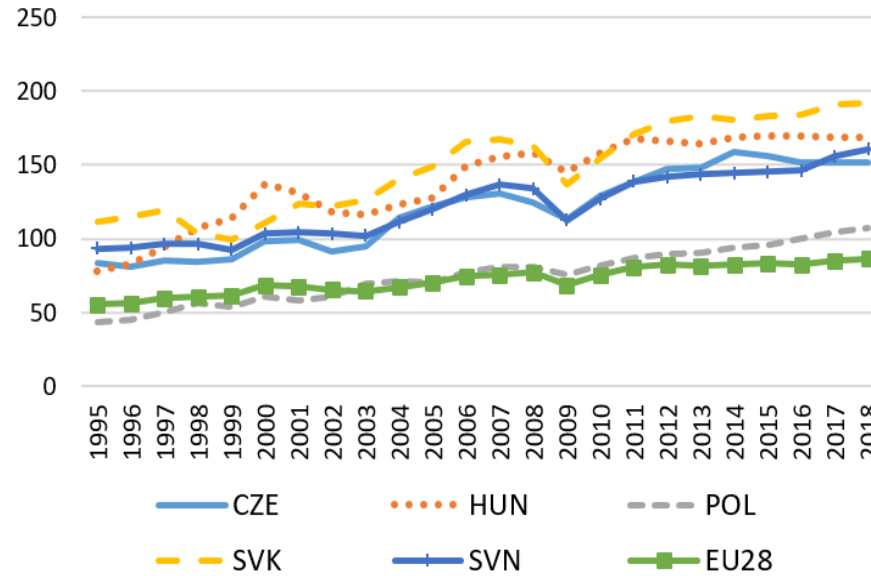


Countries with low growth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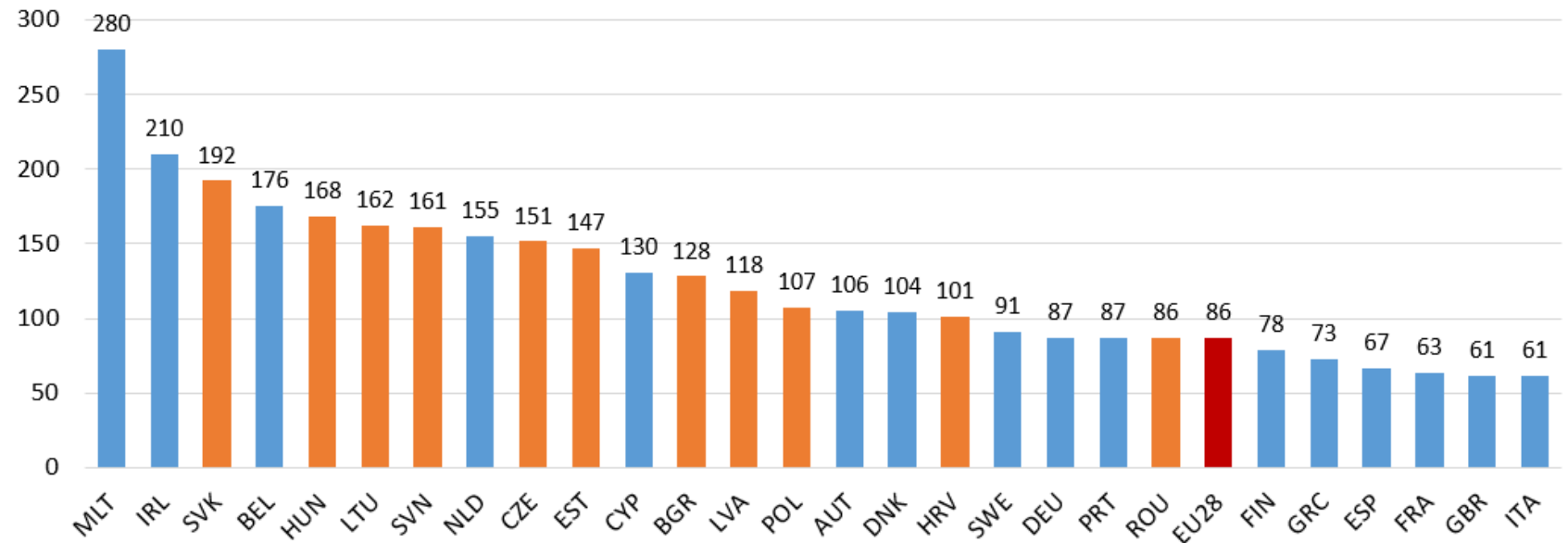


- V4 국가들의 경제구조는 체제 전환, EU 가입준비를 거치면서 수출 중심으로 탈바꿈
- V4 국가들의 무역개방도는 100%를 상회 (서비스까지 포함한 자료)
- 다수의 서유럽 국가들은 탈제조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을 경험한 반면, V4 국가들은 제조업이 오히려 강화되는 추이로 진행
- 서유럽(독일)-V4 국가 간의 지역가치사슬(RVC) 형성

Trade Openness of CEE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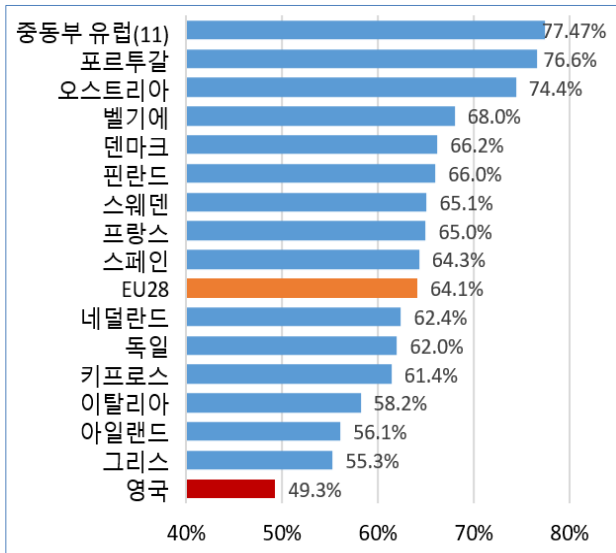


Trade Openness of EU28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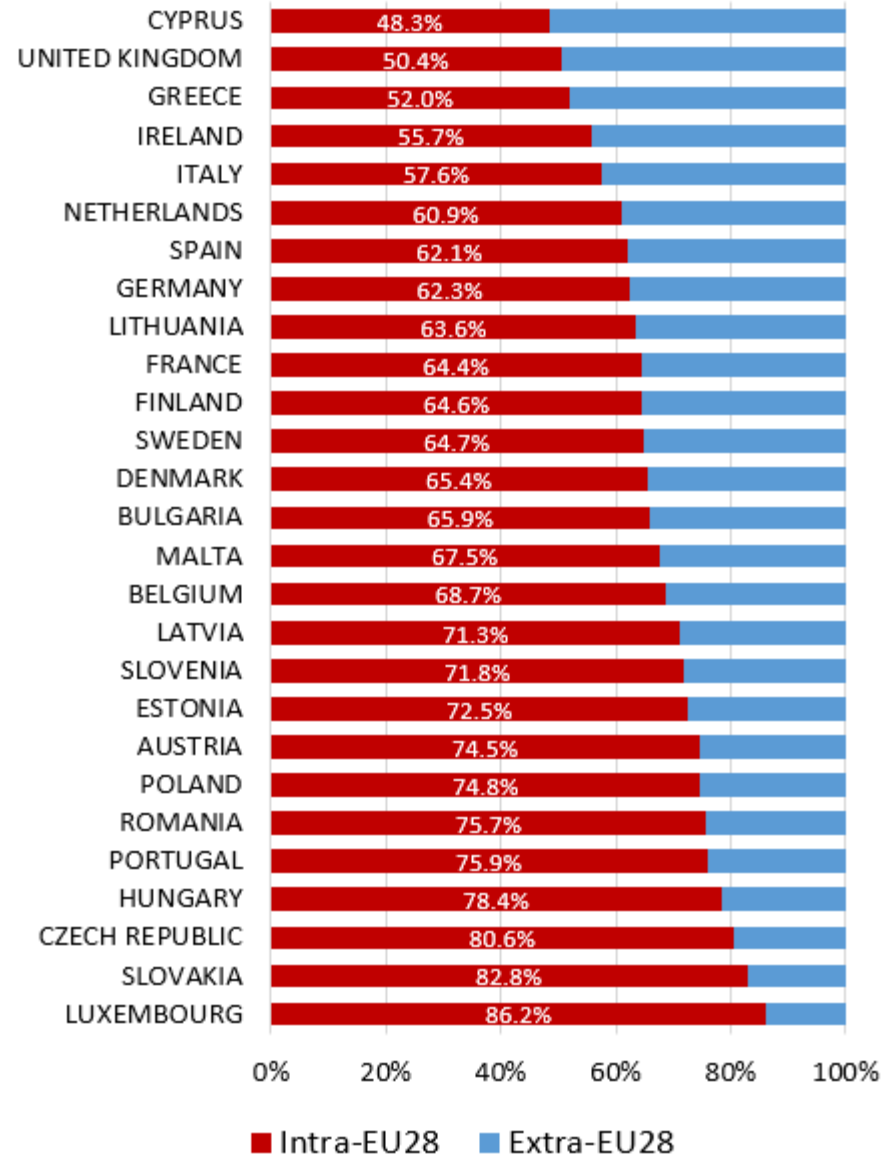
- V4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역내 무역비중이 높음.
- 본래 EU 회원국은 약 64% 정도의 무역이 역내 무역
- 체코, 슬로바키아는 총 무역의 80% 이상이 EU 회원국과의 역내 무역임.

EU 회원국의
역내무역비중(2016년)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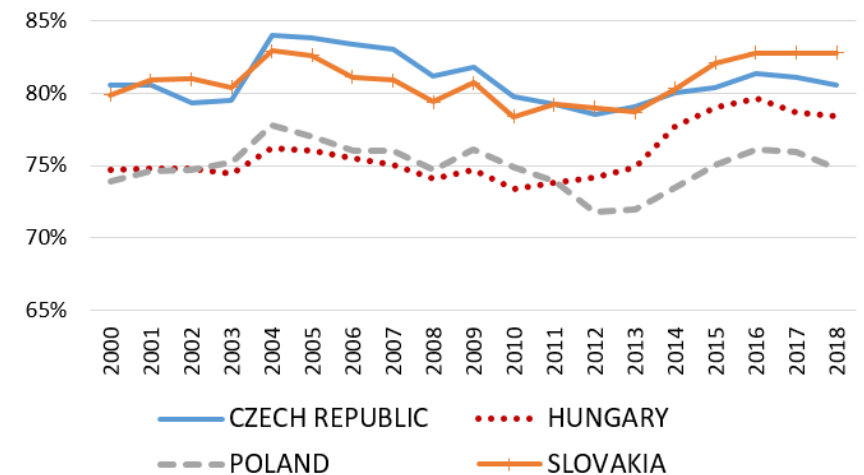
Intra-EU28 trade share



Intra-EU trade and CEE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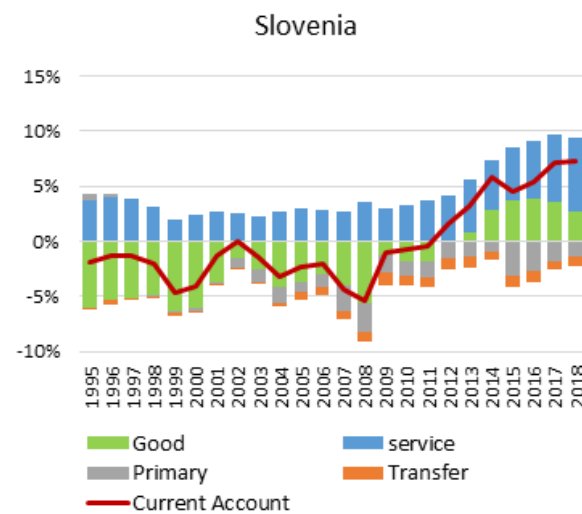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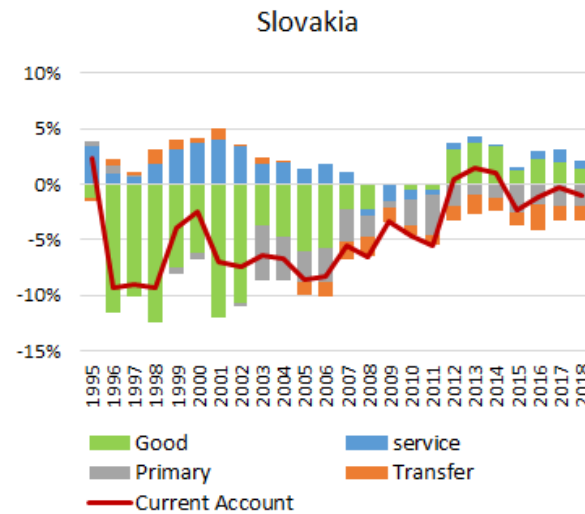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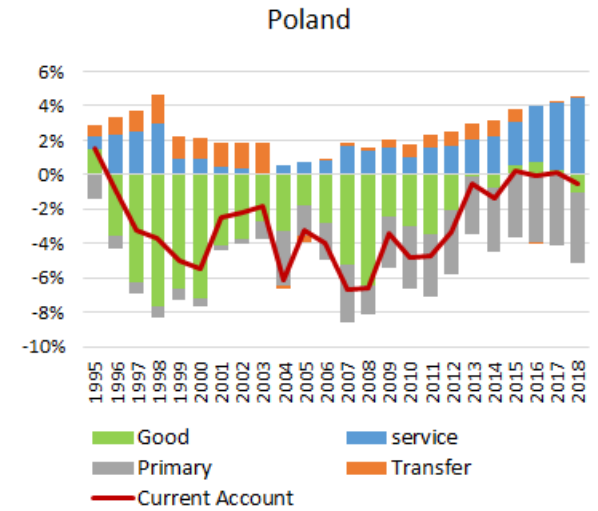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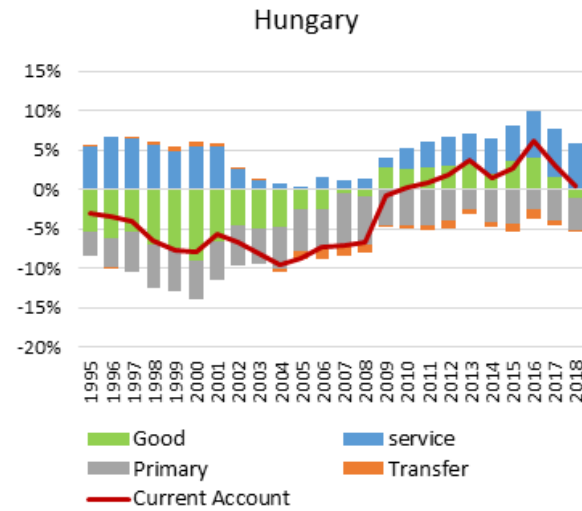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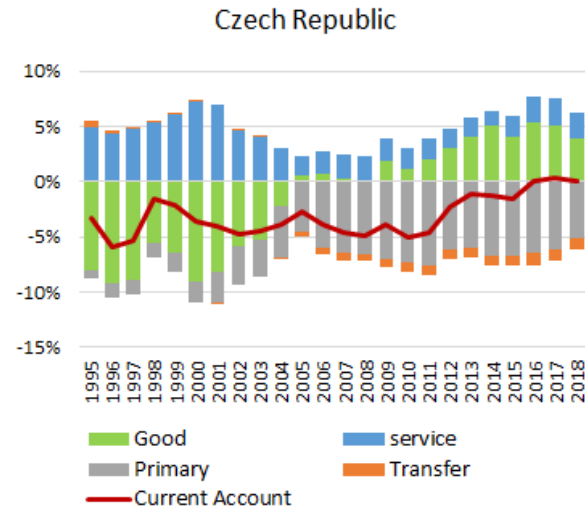
- Most of CEECs have very high share of intra-EU trade in their total trade.
- Geographic locations, wage, policy factors (tax, etc.)
- Emergence of CEECs' industrial structures

Intra-EU28 trade share



Current account balance and its components

- V4 국가들은 과거 상품 수지 적자국이었으나, 체제 전환, EU 가입 과정에서 외자유치에 기반하여 제조업 기반을 확충
- 경상수지에 있어서 상품 무역 흑자, 소득수지 적자의 구조가 정착



EU 가입 이후 정치적 변화

-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요건
 - **정치적 기준**: 정부 기관의 안정성, 민주주의의 보장, 법치, 인권존중, 소수민족 보호
 - **경제적 기준**: EU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 **제도적 기준**: EU의 특징(정치·경제·통화 공동체)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혁과 함께 EU 법체계의 수용이 필요
- EU는 가입 협상에 있어 철저하게 이 기준의 **예외 없는 수용을 요구**하는 입장(take all or leave it attitude)을 유지
 -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사법제도 개혁 미비와 정치적 부패를 이유로 2004년 가입 대상국에 미포함
 - 크로아티아는 2003년에 EU 가입 신청, 2005년부터 35개 분야(chapter)에 걸쳐 광범위한 협상 진행. 2011년 12월에서 협상 완료

CURRENT NEGOTIATING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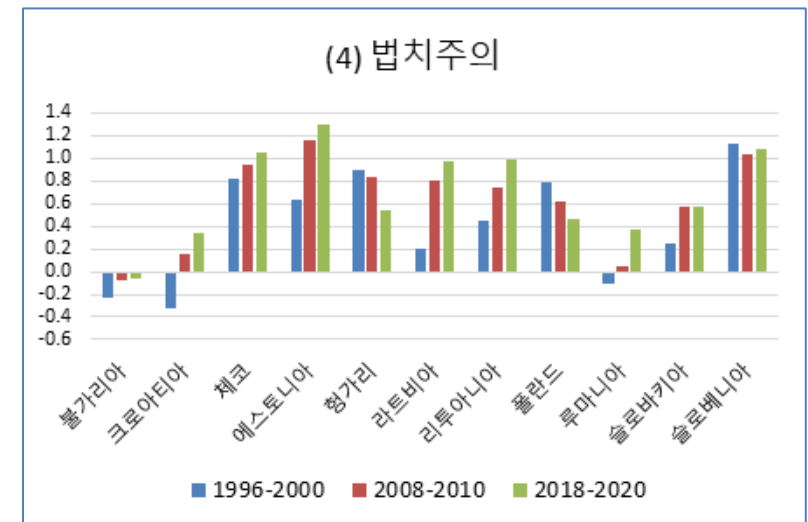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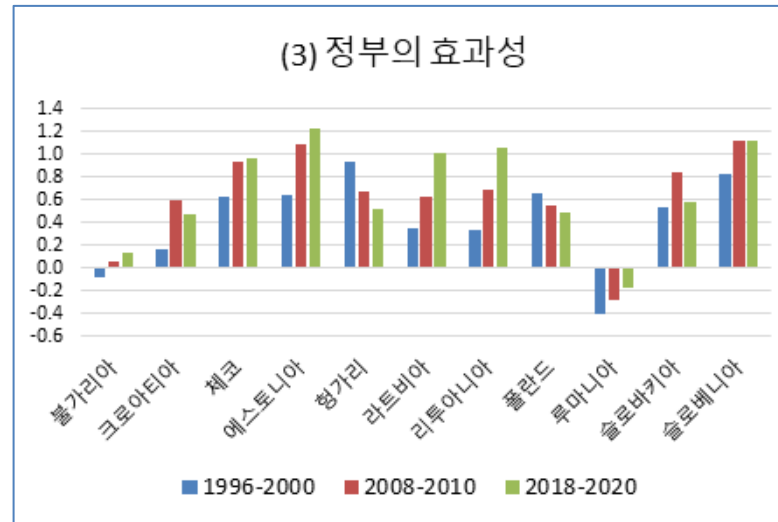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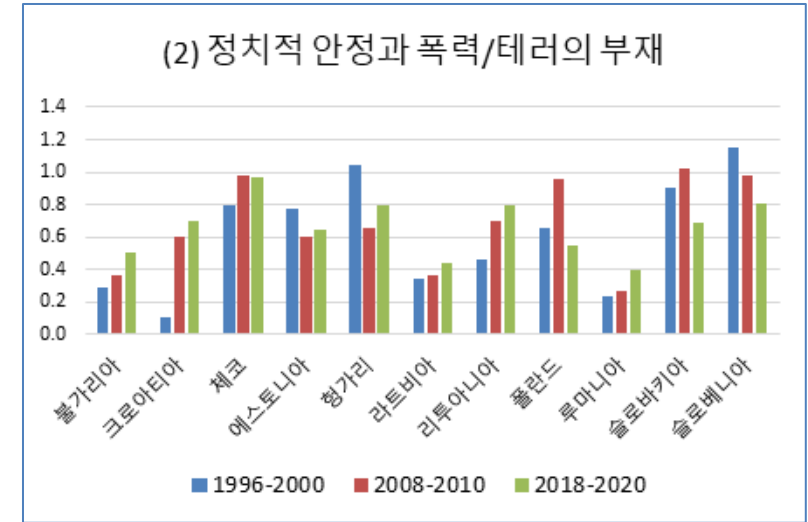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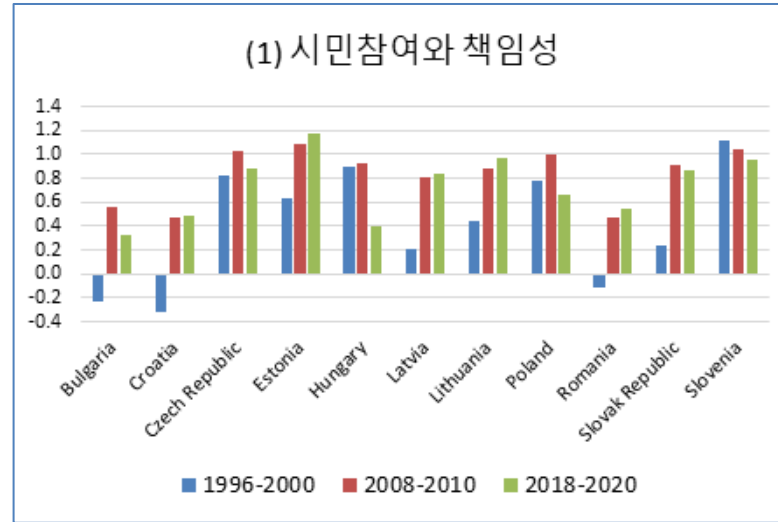
No.	Title of Chapter
1	Free movement of goods
2	Freedom of movement for workers
3	Right of establishment and freedom to provide services
4	Free movement of capital
5	Public procurement
6	Company law
7	Intellectual property law
8	Competition policy
9	Financial services
10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11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12	Food safety,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policy
13	Fisheries
14	Transport policy
15	Energy
16	Taxation
17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18	Statistics
19	Social policy and employment
20	Enterprise and industrial policy
21	Trans-European networks
22	Regional policy and coordination of structural instruments
23	Judiciary and fundamental rights
24	Justice, freedom and security
25	Science and research
26	Education and culture
27	Environment
28	Consumer and health protection
29	Customs union
30	External relations
31	Foreig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32	Financial control
33	Financial and budgetary provisions
34	Institutions
35	Other issues

Legend: ● not yet opened ● opened ● provisionally closed ● suspended

EU 가입 이후 정치적 변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거버넌스 변화

- World Bank의 글로벌 거버넌스 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를 통해 파악
-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6~2010년 사이에 거버넌스 지표가 대폭 개선**
 - 불가리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크게 개선
 - 2010년 이후에는 국가별로 거버넌스 수준이 계속 개선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악화되는 국가도 존재
- EU 가입을 위한 준비기간과 가입 직후 수년 동안 대부분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국내 거버넌스가 상당히 개선
- 반면에 중동부유럽 내에서도 국가별로 큰 편차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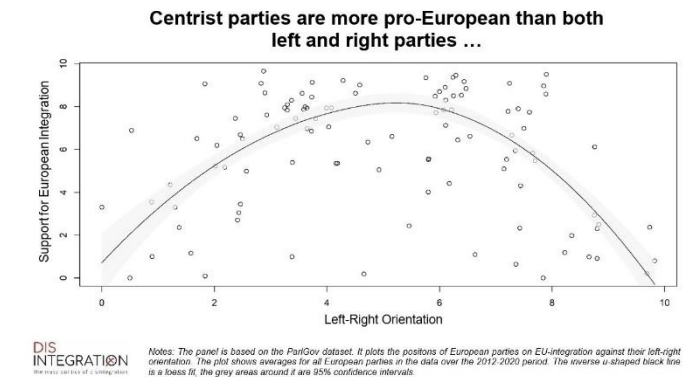
최솟값은 - 2.5, 최대값은 +2.5이며 클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우수함을 의미.

Ch. 3

▀ 중동부 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의 개념

- **유럽회의주의** (Euroscepticism): Euro + Scepticism
 - 유럽통합과정에 대하여 반발하는 이념이나 사상을 일컫는 용어
- 초기에는 저널리즘 차원에서 사용, **유럽통합의 심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
 - 1980년대까지 유럽통합에 대한 영국의 반대를 지칭(노동당, 보수당)
 -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통합에 대한 모든 형태의 반대를 지칭**
 - Taggart and Szczerbiak(2002), Kopecký and Mudde(2002), Lubbers and Scheepers(2005), Valsilopoulou(2009)에 의해 연구 진행
 - 반대이유: **국민국가**, **국가주권의 상실**,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
 - 유럽회의주의는 정치스펙트럼의 양 극단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는 'U자 형태'로 존재
 - 극우정당: 국가이익, 주권, 민족정체성 상실을 이유로 EU 통합에 반대
 - 극좌정당: 국제경쟁의 증가, 탈규제 복지 축소를 이유로 EU 통합에 반대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의 개념

- Taggart and Szczerbiak (2002)
 - 강성유럽회의주의** (Hard Euroscepticism): 유럽의 정치 및 경제 통합자체를 거부하고, EU 가입에도 반대 (UKIP)
 - 연성유럽회의주의** (Soft Euroscepticism): 유럽통합 계획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책 일부를 수용하지 않음 (UK Conservative, Lega Nord, Austria FPÖ).
 - 유럽회의주의 정당은 스페인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존재, 다만 대체로 지지율이 낮은 군소정당의 형태
- Kopecký and Mudde (2002)
 - 두 개의 기준을 사용: ① 유럽통합 이념에 대한 찬반 여부, ② EU의 구체적 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



유럽회의주의의 분류

		유럽통합에 대한 지지 여부 (diffuse support)	
		유럽통합주의 (Europhile)	유럽혐오주의 (Europhobe)
EU에 대한 지지 여부 (specific support)	EU 낙관주의 (EU-optimist)	유럽열광주의 (Euroenthusiasts)	유럽실용주의 (Europragmatists)
	EU 비관주의 (EU-pessimist)	유럽회의주의 (Eurosceptics)	유럽거부주의 (Eurorejects)

출처: Kopecký and Mudde (2002), p. 303.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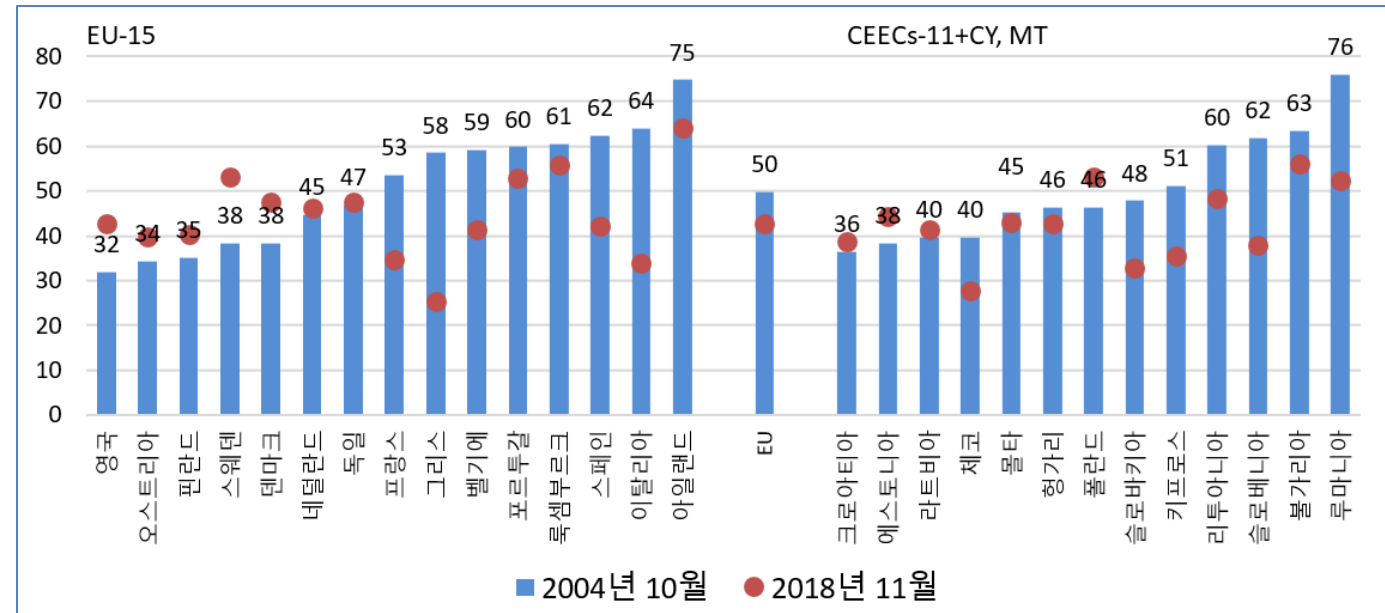
- Lubbers and Peer Scheepers (2005)
 - 정치적 유럽회의주의(political Euroscepticism): EU의 정책결정 정당성
 - 도구적 유럽회의주의(instrumental Euroscepticism): EU 내부의 재분배와 국가이익에 관한 경제문제
- Valsilopoulou (2009)
 - 원칙(유럽통합을 향한 의지), 실행(현재 유럽연합의 제도와 정책), 미래 (유럽통합의 심화)의 세 차원으로 구분
 - 세 가지 차원 모두 반대: 거부적 유럽회의주의(Rejecting euroscepticism)
 - 통합의지만 유지: 조건적 유럽회의주의(Conditional euroscepticism)
 - 통합의지를 갖고 EU 제도에 찬성, 단 추가적 통합에는 반대: 타협적 유럽회의주의(Compromising euroscepticism)
- Krouwel and Abts (2007)
 - 회의주의의 대상: EU의 정치행위자, EU의 제도, 유럽 공동체로 분류
 - 시민들의 EU에 대한 태도: 신뢰(trust), 회의(skepticism), 불신(distrust), 냉소(cynicism), 소외(alienation)의 다섯 단계로 구분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

-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에 관한 연구는 **특수한 역사적 발전 경로**와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
- **EU 가입 조건에 대한 비판 (1990년대)** → 중동부유럽의 국내 정치에서 유럽통합에 관한 논쟁이 등장
 - 정당들은 EU 가입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EU 집행위원회의 협상 방식을 일방적인 것으로 인식
 -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정치적 주체들이 EU의 가입조건에 대해 비판을 시작하면서 부터
- 중동부유럽의 민족주의(nationalism)는 공산주의 체제로 대표되는 **역사적 상처와 굴욕**
 - 서유럽의 유럽회의주의와 달리, EU를 대중의 의지에 반하는 부패한 엘리트 집단으로 간주
 - **체코**: 기술관료주의와 결합된 대중영합주의, 민주주의의 쇠퇴 현상이 유럽회의주의와 관련
 - **폴란드**: 1990년대에는 극단주의나 민족주의 운동이 거의 없었음. 반면에 2000년대 중반부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 **헝가리**: 극우정당으로써 Jobbik에 주목. 대중의 사회적 좌절감보다는 반체제주의 및 민족주의, 집시혐오정서 등을 활용
 - **슬로바키아**: 2015년 난민 위기와 European Commission이 주도한 난민할당제(relocation scheme)는 유럽회의주의 여론을 부추김.

- EU에 대한 이미지(긍정적/부정적)와 EU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
- 전반적으로 서유럽, 중동부유럽 간에 어느 쪽이 더 **유럽친화적/회의적**인가는 구분이 어려움.
 - 2004년 중동부유럽 국가 11개 국가(CEEC-11) 중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4개 국가에서만 긍정적 이미지 답변 비중이 50%를 상회
 - 반면에 서유럽의 기존 회원국(EU-15) 중에서는 15개국 중 8개국에서 50% 이상의 답변이 EU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
 - 2018년 11월의 설문조사에서는 다수의 회원국에서 EU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답변이 감소
 - EU-15 중에서는 주로 경제위기와 저성장을 겪은 국가(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CEECs-11 중에서는 8개국에서 EU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비중이 감소

EU에 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설문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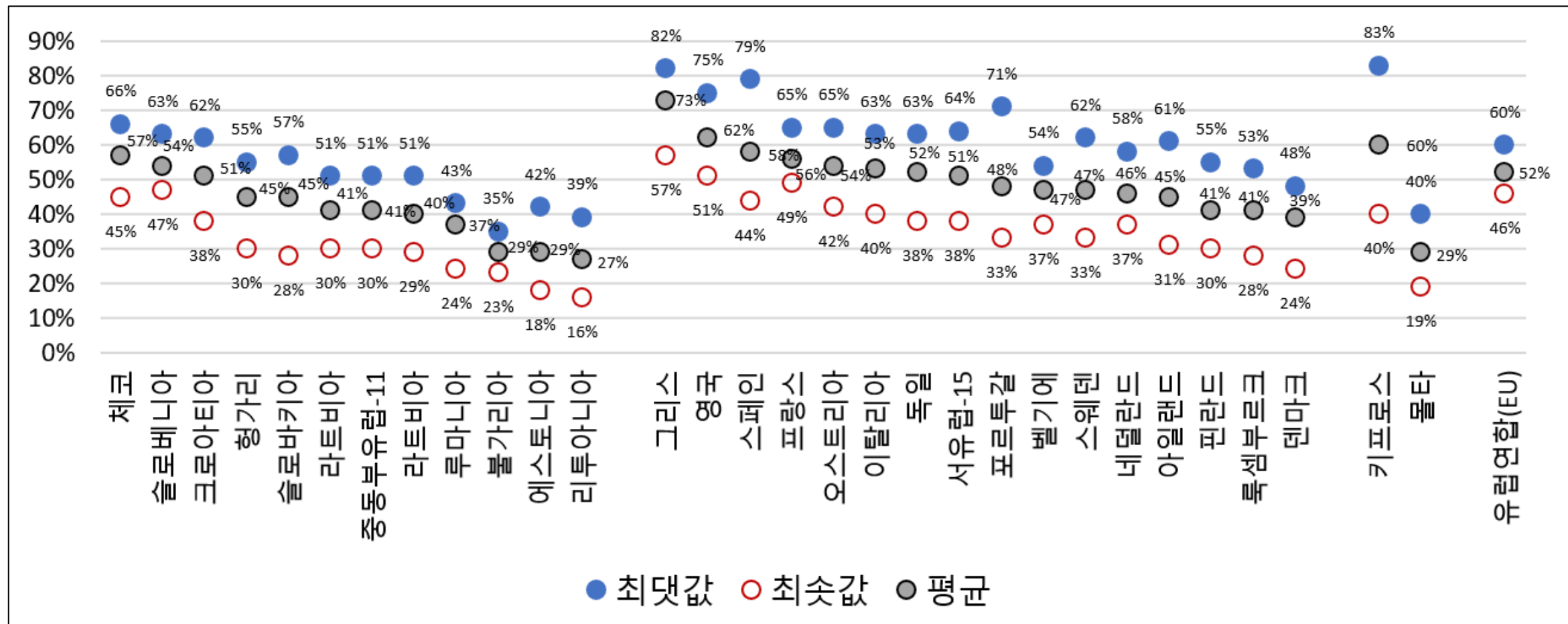
EU 회원국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최대값과 최소값 비교

- 유로존 위기, 유럽난민 위기 등에 영향
- 그리스의 경우 특수성 존재
-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성향 추이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유형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국가 단위의 거시적 특징 또는 동일 시점의 범유럽적 현상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어려움.

주: (1) EU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는 답변에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tend to not to trust)라고 응답한 설문자의 비중을 나타냄.
(2) 굵은 테두리 표시는 유럽회의주의 성향이 최대인 시점과 그 값을 의미하며, 테두리가 없는 표시는 최소인 시점을 의미함.
출처: Eurobarometer.

중동부유럽	불가리아	24%	24%	23%	30%	24%	28%	29%	31%	33%	27%	35%	33%	34%	31%	29%	28%	29%	28%	25%
	체코	45%	48%	55%	63%	60%	60%	61%	61%	49%	45%	63%	62%	66%	63%	56%	56%	58%	55%	52%
	에스토니아	22%	26%	39%	36%	38%	42%	33%	27%	18%	19%	29%	32%	36%	26%	28%	25%	25%	23%	24%
	헝가리	55%	54%	62%	57%	59%	54%	57%	50%	51%	38%	46%	45%	50%	45%	50%	48%	44%	48%	50%
	크로아티아	30%	39%	44%	55%	51%	46%	47%	50%	43%	34%	51%	53%	50%	49%	43%	50%	48%	40%	39%
	리투아니아	51%	48%	51%	51%	47%	51%	45%	44%	36%	31%	47%	39%	40%	37%	38%	36%	32%	31%	30%
	라트비아	29%	29%	36%	39%	37%	38%	35%	29%	25%	17%	25%	23%	29%	22%	21%	19%	21%	16%	21%
	폴란드	35%	33%	41%	46%	42%	51%	39%	40%	29%	33%	39%	43%	42%	44%	42%	41%	41%	35%	37%
	루마니아	34%	28%	38%	43%	40%	43%	42%	34%	31%	24%	29%	43%	41%	36%	41%	41%	41%	41%	37%
	슬로베니아	28%	34%	45%	47%	48%	50%	50%	57%	42%	38%	51%	50%	47%	48%	43%	45%	47%	46%	44%
	슬로바키아	48%	49%	56%	57%	57%	63%	58%	57%	49%	52%	62%	54%	57%	52%	55%	50%	56%	50%	47%
서유럽	오스트리아	52%	50%	59%	61%	55%	55%	52%	61%	49%	59%	65%	56%	58%	52%	55%	51%	49%	42%	48%
	벨기에	40%	37%	46%	49%	51%	51%	49%	48%	49%	45%	54%	53%	49%	51%	44%	49%	44%	45%	48%
	독일	54%	55%	57%	61%	59%	61%	59%	57%	53%	48%	63%	60%	53%	48%	42%	42%	38%	42%	43%
	덴마크	35%	42%	42%	46%	46%	45%	47%	48%	39%	32%	41%	45%	46%	35%	37%	32%	31%	24%	26%
	그리스	57%	67%	68%	79%	81%	80%	77%	75%	76%	73%	81%	82%	78%	76%	74%	69%	70%	66%	62%
	스페인	44%	49%	62%	72%	72%	75%	71%	79%	61%	54%	61%	56%	54%	51%	47%	49%	54%	46%	51%
	핀란드	44%	42%	50%	55%	48%	54%	48%	42%	34%	30%	39%	40%	43%	32%	38%	35%	36%	30%	32%
	프랑스	51%	50%	60%	55%	56%	57%	63%	56%	52%	51%	64%	59%	65%	49%	56%	55%	57%	56%	58%
	아일랜드	43%	39%	60%	56%	57%	61%	55%	54%	47%	39%	52%	38%	42%	37%	39%	35%	38%	33%	31%
	이탈리아	41%	40%	49%	63%	53%	61%	62%	55%	54%	44%	52%	54%	58%	48%	52%	51%	56%	55%	52%
	룩셈부르크	40%	39%	45%	49%	53%	53%	48%	52%	38%	38%	46%	40%	41%	28%	34%	31%	33%	31%	35%
	네덜란드	39%	41%	51%	53%	50%	58%	55%	48%	45%	42%	46%	50%	51%	45%	43%	42%	37%	38%	38%
	포르투갈	47%	46%	56%	63%	58%	71%	68%	66%	50%	44%	48%	47%	42%	37%	38%	36%	36%	33%	33%
	스웨덴	49%	46%	52%	59%	62%	60%	54%	49%	40%	41%	42%	49%	48%	46%	37%	40%	33%	37%	40%
	영국	68%	63%	73%	75%	69%	68%	67%	61%	61%	55%	63%	59%	56%	51%	59%	57%	53%	56%	56%
도서국가	키프로스	50%	42%	42%	62%	64%	83%	75%	67%	69%	69%	72%	67%	63%	57%	56%	54%	52%	40%	53%
	몰타	32%	28%	36%	40%	34%	29%	32%	28%	29%	23%	31%	29%	28%	19%	29%	29%	22%	20%	26%
유럽연합(EU)		47%	47%	55%	60%	57%	60%	59%	56%	50%	46%	56%	55%	54%	47%	48%	48%	48%	46%	47%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U 회원국의 유럽회의주의 성향 비교(2010~2019년)



주: 굵은 테두리 표시는 유럽회의주의 성향이 최대인 시점과 그 값을 의미하며, 테두리가 없는 표시는 최소인 시점을 의미함.

출처: Eurobarometer.

EU의 이미지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답변의 추이 (2004~2018)

- EU-28 차원에서 긍정적 이미지 답변 비중은 2007년까지 50% 내외로 유지되었지만 2008~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 **2013년에는 30%로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답변 비중이 거의 같아짐.
 -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등 경제위기로 인해 EU 내부의 혼란이 증폭되었던 시기
- 반면에 **2014년부터는 긍정적 이미지의 비중이 회복**, 2018년 11월 기준 긍정적 답변의 비중이 42.8%, 부정적 답변의 비중이 19.7%
- 중동부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패턴을 보임.
- 다만 체코의 경우 2015년 이후에도 EU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감소,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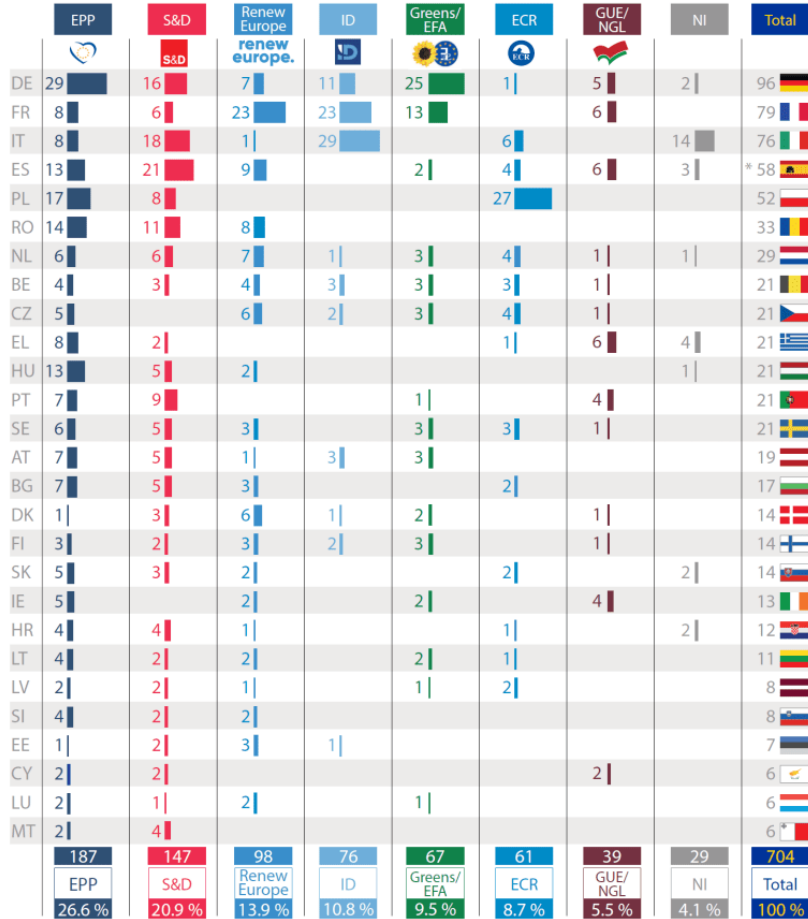
At a glance

Infographic

13 February 2020



Size of political groups in the EP



Data supplied by Members' Administration Unit.

* One seat from Spain is currently vacant.

EPRS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646.184 Author: Giulio Sabbati, Members' Research Service

Members' Hotline – Tel. 88100

Disclaimer and Copyright. This document is prepared for, and addressed to, the Members and staff of the European Parliament as background material to assist them in their parliamentary work. The content of the document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its author(s) and any opinions expressed herein should not be taken to represent an official position of the Parliament. Reproduction and translation for non-commercial purposes are authorised, provided the source is acknowledged and the European Parliament is given prior notice and sent a copy. © European Union, 2020.
ep@ep.europa.eu – <http://www.eprs.parliament.eu> (intranet) – <http://www.europa.eu/thinktank> (internet) – <http://epthinktank.eu> (blog)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정당(유럽의회 소속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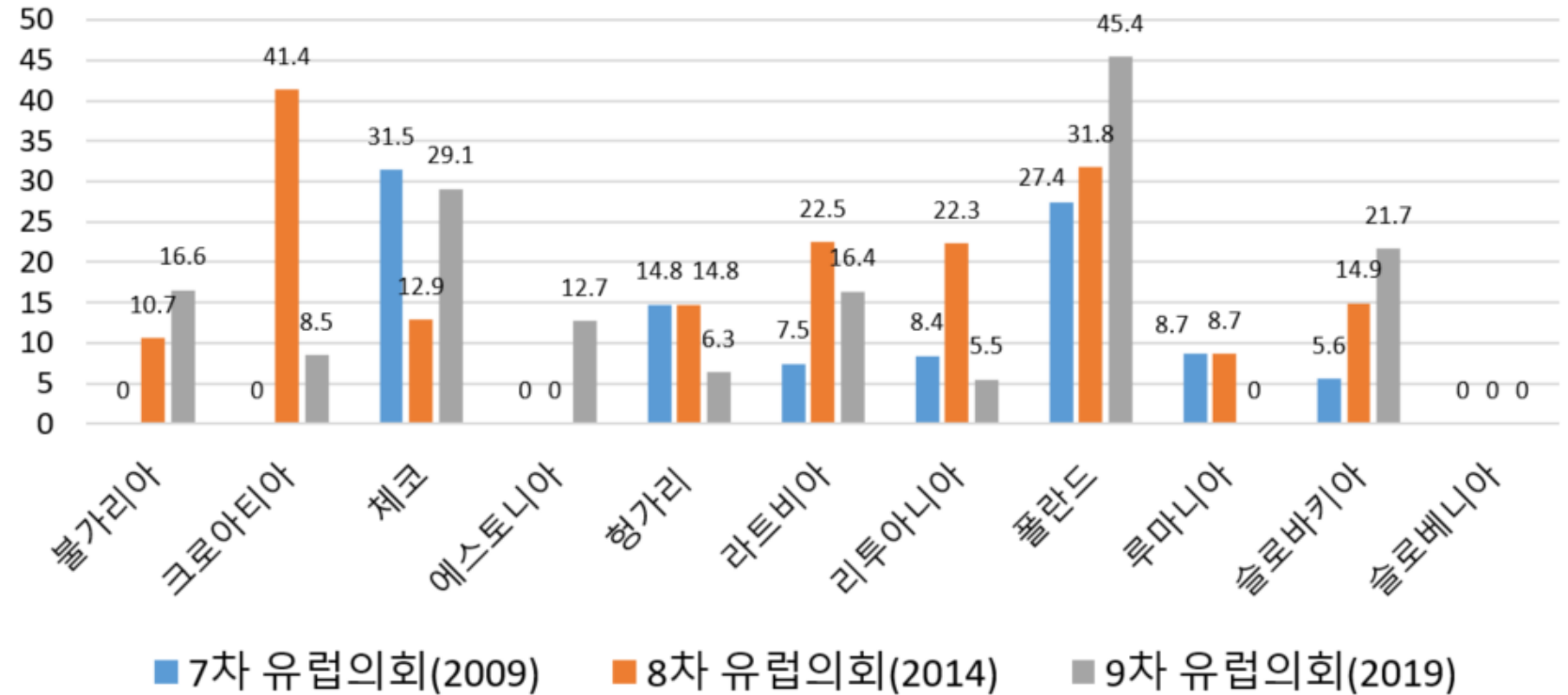
명칭	성격	중동부유럽의 소속정당
유럽보수개혁연대(ECR: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 보수주의/ · EU에 비교적 회의주의적 입장	· 크로아티아: Croatian Conservative Party, HKS · 체코: Civic Democratic Party, ODS · 라트비아: NA, National Alliance, NA · 리투아니아: Electoral Action of Poles in Lithuania – Christian Families Alliance, LLRA – KŠS · 폴란드: Law and Justice, PiS/United Poland, SP/The Republicans, R · 루마니아: Christian Democratic National Peasants' Party, PNT-CD · 슬로바키아: Freedom and Solidarity, SaS
자유와 직접민주주의 유럽(EFD: Europe of Freedom and Democracy)/자유와 직접민주주의의 유럽(EFDD: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 우파민중주의 · 자국중심 보수주의 · EU에 회의적인 입장	· 불가리아: National Front for the Salvation of Bulgaria · 리투아니아: Order and Justice · 폴란드: United Poland(2019년부터는 ECR 가입) · 슬로바키아: Slovak National Party
정체성과 민주주의(ID: Identity and Democracy)	· 민족주의 · 우파/극우주의 · 유럽회의주의	· 체코: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SPD · 에스토니아: Conservative People's Party of Estonia (EKRE)

주: EFD는 2014년 EFDD로 재편되었고, EFDD는 2019년에 해산됨. ID는 2019년에 새로 결성됨.

자료: European Parliament.

-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표율
 - ECR, EFD/EFDD, ID 등 3대
정치그룹 + 무소속(NI)
-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공공연한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경우 발생
- 반면에 중동부유럽에서는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의 경우가 유일하며,
사실 완전한 유럽회의주의는 아님.
-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표율이 20%를
상회
-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3대
유럽회의주의 정치 그룹(ECR, ID,
NI)의 득표율은 25.57%인 반면,
중동부유럽 11개국에서의 평균
득표율은 **14.74%에 불과**
- **폴란드와 체코를 제외하면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당이
우위를 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유럽의회 선거와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표율



Ch. 4

▀ 거시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유럽회의주의의 원인에 관한 연구: 종속변수

- **Trust in the EU**
- **Image of the European Union**
 - In general, does the European Union conjure up for you a very positive, fairly positive, neutral, fairly negative or very negative image?
- **Trust in European institutions**
 - The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arliament, Council of the EU
- **To be nationality European in the future**
 - Do you see yourself as...?
- **Support for key European policies**
 - A common European policy on migration
 - A common foreign policy of all Member States of the EU
- **Optimism about the future of the EU**
 - Would you say that you are very optimistic, fairly optimistic, fairly pessimistic or very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of the EU?
- **Policies national or EU level**
 - Economic policy
 - Foreign policy towards countries outside the European Union

유럽회의주의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설명변수**

- **개별 국가 단위의 정치, 경제적 변화**가 유럽회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Petrakis et al. 2014; Hobolt 2014; Gomez 2015; Ioannou et al. 2015
 - 실업률, 국가채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 사용
 - 경기악화를 유럽회의주의 부상의 원인으로 지적
- **개인의 성향, 배경** 등이 유럽회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Hakhverdian et al. 2013; van Elsas and van der Brug 2015; Borin et al. 2017; Drakos et al. 2019
 - 교육수준, 성별, 직업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미시데이터를 사용
 - 개인적 특성 또는 상황이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설명
- **거시데이터와 미시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한 연구
 - Serricchio et al. 2013; Harteveld 2013; Mcevoy 2016
- 통계기법: 종속변수와 관련
 - 연속형 변수(예: 신뢰도), 확률변수(예: 신뢰확률), 이항 변수(trust or distrust)

가설 설정

- 유럽회의주의 여론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는 Eurobarometer의 설문 조사 중 EU에 대한 이미지(긍정적/부정적), EU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임.
- 유럽선호/회의주의를 나타낼 수 있는 종속변수로 설문 응답자 중 **EU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중**을 사용
- **가설 1. EU 가입을 통해 얻게 된 이익이 클수록 EU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 EU 가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결속정책**과 **농업정책**을 통한 EU 예산의 지원이 대표적
 - 역내무역의 증가를 통한 소득증가, 외국인투자 유입, 고용창출, 경제성장
- **가설 2. 회원국의 산업구조는 EU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EU 역내와 역외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고,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
 -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에 기반을 둔 견조한 **제조업 생산 역량**과 **높은 무역개방도**를 갖추
- **가설 3. 주변국과의 무역관계는 EU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EU 역내무역의 비중이 결국 국가 경제가 EU 경제와 연동
 - 대러시아 관계는 중동부유럽이 EU를 바라보는 시각을 설명 → 對러시아 경제관계

$$Trust_EU_{it} = c_1 + c_2 \sum_{k=1}^l Democracy_{it} + c_3 \sum_{k=1}^m Economics_{it} + c_4 \sum_{k=1}^n EU_Fund_{it} + c_5 \sum_{k=1}^o Industry_{it} + c_6 \sum_{k=1}^p Trade_{it} + c_7 \sum_{k=1}^q Institution_{it} + dummy_{it} + \mu_{it}$$

주: i와 t는 각각 국가와 시점을 의미함

- 6개 그룹으로 구분된 설명변수를 선정
- **민주주의와 경제적 상황**
 - 유럽회의주의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설명변수
- **가설 (1):**
 - 결속 기금 및 농업예산 수혜액 (GNI 대비)
- **가설 (2)**
 - 무역개방도와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 비중
- **가설 (3)**
 - EU 역내무역과 대러시아, 대 중국 무역의 비중

국가 단위 분석을 위한 변수 설명

변수 구분		변수	변수 이름	자료의 출처
종속변수	유럽회의주의	EU에 대한 신뢰	$Trust_EU_{it}$	Eurobarometer
설명변수	민주주의/정부	EU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EU_democracy_{it}$	Eurostat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Trust_Nat_Gov_{it}$	
	경제적 상황	1인당 GDP 증가율	$GDPPC_{it}$	World Bank
		실업률	$Unemployment_{it}$	Eurostat
		EU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	$EU_Economy_{it}$	Eurobarometer
		자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	$Nat_Economy_{it}$	
	EU 기금의 수혜	결속기금 수혜 (GNI 대비)	$Cohesion_{it}$	European Commission
		농업예산의 수혜 (GNI 대비)	$Agriculture_{it}$	
	산업구조	무역개방도	$Openness_{it}$	World Bank
		총부가가치 생산 중 제조업 비중	$Manufacture_{it}$	World Bank
	무역관계	EU 회원국과의 무역비중	$Trade_EU_{it}$	Eurostat
		러시아와의 무역비중	$Trade_Russia_{it}$	
		중국과의 무역비중	$Trade_China_{it}$	
	제도적 발전	정부의 실효성	$Effectiveness_{it}$	World Bank
	더미변수	유로화 도입 여부	$Euro_{it}$	

실증분석 결과

- **EU의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잘 설명**
 - EU-28, EU-15, CEEC-13에 대해 모두 유효
- **실업률 등 경제변수는 EU-15에 대해서만 유효, CEEC-13에 대한 설명력은 없음.**
- **결속 기금 수혜에 관한 변수는 EU-15에서는 양(+)의 관계, CEEC-13에서는 음(-)의 관계가 성립**
 - **가설 (1)을 부정**
- **무역개방도, 산업구조 변수는 EU-15에 대해서만 설명력을 갖고, CEEC-13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없음.**
 - **가설 (2)를 증명하기 어려움.**

	합동분석(Pooled OLS)			고정효과 분석(Fixed Effect)		
	모형 (1): EU-28	모형 (2): EU-15	모형 (3): CEEC-13	모형 (4): EU-28	모형 (5): EU-15	모형 (6): CEEC-13
<i>Democracy_EU_{it}</i>	0.387*** (0.038)	0.577*** (0.055)	0.392*** (0.052)	0.482*** (0.047)	0.349*** (0.061)	0.548*** (0.065)
<i>Trust_Gov_{it}</i>	0.344*** (0.031)	0.210*** (0.050)	0.450*** (0.053)	0.281*** (0.038)	0.194*** (0.046)	0.298*** (0.057)
<i>GDPPC_{it}</i>	0.002 (0.003)	0.016* (0.009)	-0.002 (0.004)	0.027 (0.032)	0.389*** (0.063)	-0.032 (0.040)
<i>Unemployment_{it}</i>	-0.221** (0.087)	-0.401*** (0.138)	-0.206 (0.145)	-0.207 (0.126)	-1.095*** (0.176)	0.122 (0.188)
<i>Economy_EU_{it}</i>	0.531*** (0.062)	0.349*** (0.102)	0.686*** (0.075)	0.554*** (0.063)	0.445*** (0.085)	0.608*** (0.089)
<i>Economy_Ctry_{it}</i>	-0.233*** (0.049)	-0.107 (0.074)	-0.475*** (0.073)	-0.354*** (0.050)	-0.282*** (0.068)	-0.338*** (0.077)
<i>Cohesion_{it}</i>	-1.017** (0.467)	4.219*** (1.177)	-2.895*** (0.515)	-1.367*** (0.513)	0.267 (1.368)	-2.074*** (0.575)
<i>Agriculture_{it}</i>	1.105 (0.908)	0.860 (1.969)	2.659** (1.060)	-3.560** (1.558)	3.438 (4.916)	-2.966* (1.685)
<i>Trade_openness_{it}</i>	0.011* (0.006)	-0.024** (0.010)	0.041*** (0.012)	0.048** (0.022)	0.086*** (0.031)	0.019 (0.030)
<i>Manufacture_{it}</i>	-0.081 (0.060)	-0.314*** (0.109)	0.202** (0.089)	-0.188 (0.147)	-0.619*** (0.180)	-0.007 (0.31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실증분석 결과 (계속)

- EU 역내무역 비중은 EU-15와 CEEC-13에 대해 모두 설득력을 가짐.
- **대러시아 무역 변수**는 EU-15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있으나. **CEEC-13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없음.**
- 대중국 무역 변수는 모두에 있어 설명력을 가짐.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높을수록 EU에 대한 신뢰가 낮음.**
- 제도 관련 변수는 통계적 유효성이 없음.

	합동분석(Pooled OLS)			고정효과 분석(Fixed Effect)		
	모형 (1): EU-28	모형 (2): EU-15	모형 (3): CEEC-13	모형 (4): EU-28	모형 (5): EU-15	모형 (6): CEEC-13
<i>Trade_EU_{it}</i>	0.145*** (0.044)	-0.018 (0.108)	0.106 (0.076)	0.328** (0.142)	0.479** (0.238)	0.298* (0.176)
<i>Trade_Russia_{it}</i>	0.337*** (0.096)	0.173 (0.209)	0.408*** (0.133)	0.048 (0.273)	-0.852* (0.480)	-0.187 (0.325)
<i>Trade_China_{it}</i>	-1.675*** (0.229)	-1.367*** (0.328)	-0.689 (0.606)	-1.652*** (0.310)	-1.072*** (0.334)	-2.808*** (0.677)
<i>Effectiveness_{it}</i>	-0.044*** (0.007)	0.013 (0.014)	-0.049*** (0.011)	-0.022* (0.012)	0.028 (0.019)	-0.030** (0.015)
<i>Euro_{it}</i>	0.006 (0.009)	0.070*** (0.025)	0.007 (0.014)	-0.016 (0.017)		-0.006 (0.018)
<i>Constant</i>	0.056 (0.044)	-0.110 (0.092)	0.024 (0.071)	-0.336 (0.361)	-4.252*** (0.678)	0.301 (0.452)
Observations	448	240	208	448	240	208
R-squared	0.764	0.781	0.800	0.711	0.800	0.729
Number of country				28	15	1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Ch. 5

▀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가설 및 변수

- **개인 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유럽회의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을 식별, 분석(서유럽과 비교)
-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견해, 경제적 상황**(소득수준) 등과 같은 개인 변수는 EU 체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U 체제와 자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평가**(민주주의)와 **경제 상황과 이에 대한 전망**도 EU에 대해 가진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H1: **개인의 특성(나이, 성별, 교육 및 사회집단)**은 EU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 H2: **EU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EU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의 운영에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다고 느낀다면, EU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 H 3: **EU의 운영 현황(정치, 경제, 사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EU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 H 4. 자국의 **EU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국이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한다면, EU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 H 5: 개인의 직업은 유럽회의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통합(EU 단일시장)의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직군**의 시민들은 EU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설 및 변수

- (1) **개인적 특성**, (2) **경제적 상황**, (3) **정치적 신뢰**, (4) **무역 및 통상정책에 대한 인식**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를 선정
 - (1) **개인의 특성**: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소득수준
 - 연령에 따라 유럽통합과 EU 체제에 대해 다른 경험을 갖게 될 가능성+**중동부유럽의 경험**
 - **교육수준**은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 특히 극우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연관관계를 형성
 - 개인의 **정치적 성향(좌/우파)**도 **유럽회의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득수준**도 **EU 체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표면적 현상(무역자유화, 일자리의 해외 이동 등)이 같기 때문
 - (2) **EU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 EU와 EU 기관, 자국 정치 기관에 대한 만족도
 - **정치적 불만과 불신이 대중영합주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
 - 그 불신이 EU 체제와 브뤼셀의 관료들을 향한 것인지, 자국의 정치에 관한 것인가?
 - 중동부유럽 시민들이 극우·급진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브뤼셀의 관료들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Stanley 2017).

가설 및 변수

(계속)

- (3) **EU의 현 상황, 미래에 대한 평가**: 경제적 상황, 전반적인 평가
 - EU 체제를 성공적으로 판단하고,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경우 유럽선호 경향
 - 유로존 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기간에는 EU에 대한 신뢰도가 많은 국가에서 하락
 - EU와 자국에 대한 평가는 **정합관계(congruence)** 또는 **보상관계(compensation)**
- (4) **EU 가입에 대한 평가**: 어떠한 이익?
 - EU 가입 또는 회원국 지위를 가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EU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
- (5) **직업에 따른 차이**: 숙련직/비숙련직, 사무직, 전문직
 - 유럽통합으로 이익을 보는 직종일수록 EU 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 서유럽에서는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시 **일자리 소실**(plombier polonaise)에 대한 우려

$$\begin{aligned} EU\ Image_{ic} = & c_1 + c_2 \sum_{k=1}^l Individual_{ic} + c_3 \sum_{k=1}^m Voice_{ic} + c_4 \sum_{k=1}^n Current_{ic} \\ & + c_5 \sum_{k=1}^o Membership_{ic} + c_6 Profession_{ic} + West/CEEC + \mu_{ic} (\mu_{ic} = \mu_i + \epsilon_{ic}) \end{aligned}$$

개인 단위 분석을
위한 변수 설명

- 2015~2021년 Eurobarometer 설문조사(7회) 데이터를 사용함.
- 데이터 통제 후 총 관측치는 281,971명

구분	변수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EU의 이미지		$Image_{ic}$	1~5 (1:매우 긍정적, 5:매우 부정적)
설명변수	개인적 특성	연령	Age_{ic}	1~6 (6:고령)
		성별	$Gender_{ic}$	male=1, female=0
		교육수준(기간)	$Education_{ic}$	1~9 (9:제일 긴 교육기간)
		정치적 성향	$Politics_{ic}$	1~5 (1:좌파, 5:우파)
		사회적 지위 (자신의 평가)	$Social_{ic}$	1~5 (1:노동 계층, 5:상위 계층)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¹⁾	EU의 민주주의	$Voice_EU_{ic}$	1~4 (1:전적으로 동의, 4:전혀 동의하지 않음)
		자국의 민주주의	$Voice_country_{ic}$	
	EU와 자국의 상황(나아가는 방향)	EU의 방향	$Current_EU_{ic}$	1~3 (1:잘못된 방향, 3:긍정적 방향)
		자국의 방향	$Current_country_{ic}$	
	EU 가입의 효과 ⁽²⁾	EU 가입에 대한 평가	$Membership_EU_{ic}$	1~3 (1:부정적, 2:긍정도 부정도 아님, 3: 긍정적)
		EU 가입으로 인한 이익	$Benefit_EU_{ic}$	0 또는 1 (1:이익 없음, 2:이익 있음)
	직업	학생/실업자/은퇴자/전문직 (자영업)/일반 자영업/전문직(피고용자)/ 관리직/숙련 노동자/비숙련 노동자		더미변수
	지역구분	서유럽(15), 중동부유럽(11)	$West, CEEC$	더미변수

실증분석 결과: 합동 OLS 분석

- 개인의 특성 변수는 모두 좋은 설명력을 보임.
 -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EU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높음.
- EU 관련 변수도 설명력이 높음.
 - EU의 거버넌스가 민주적이라고 평가할수록, EU의 발전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EU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음.
- 서유럽/중동부유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변수의 설명력이 다름.
 - 특히 정치적 성향에 관한 변수: 서유럽에서는 우파가 유럽회의적, 중동부유럽에서는 좌파가 유럽회의적 성향

	EU-28		서유럽-15		중동부유럽-11	
	전체 기간	부분	전체 기간	부분	전체 기간	부분
Age_{ic}	0.018*** (0.001)	0.017*** (0.001)	0.018*** (0.001)	0.008*** (0.003)	0.015*** (0.001)	0.018*** (0.003)
$Gender_{ic}$	-0.005* (0.003)	-0.009*** (0.003)	-0.014*** (0.004)	0.028*** (0.009)	-0.009* (0.005)	-0.006 (0.010)
$Education_{ic}$	-0.014*** (0.001)	-0.013*** (0.001)	-0.010*** (0.001)	0.001 (0.002)	-0.017*** (0.001)	-0.005** (0.002)
$Politics_{ic}$	0.015*** (0.001)	0.018*** (0.001)	0.059*** (0.002)	0.003 (0.005)	-0.029*** (0.002)	-0.028*** (0.004)
$Social_{ic}$	-0.029*** (0.002)	-0.031*** (0.002)	-0.042*** (0.002)	-0.019*** (0.005)	-0.016*** (0.003)	-0.021*** (0.006)
$Voice_EU_{ic}$	0.239*** (0.002)	0.244*** (0.002)	0.274*** (0.002)	0.170*** (0.006)	0.194*** (0.003)	0.171*** (0.006)
$Current_EU_{ic}$	-0.365*** (0.002)	-0.361*** (0.002)	-0.348*** (0.002)	-0.243*** (0.006)	-0.375*** (0.003)	-0.238*** (0.006)
$Membership_EU_{ic}$				-0.439*** (0.009)		-0.428*** (0.010)
$Benefit_EU_{ic}$				-0.302*** (0.015)		-0.314*** (0.016)
$CEEC$		-0.061*** (0.003)				
Constant	2.812*** (0.010)	2.815*** (0.010)	2.615*** (0.013)	4.117*** (0.036)	3.053*** (0.016)	4.083*** (0.040)
Observations	239,544	239,544	142,627	21,224	96,917	15,268
R-squared	0.278	0.279	0.287	0.458	0.275	0.457

실증분석 결과: 고정효과 포함(국가)

- OLS 분석 결과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
- 연령은 중동부유럽에서 유의한 설명력
- 교육수준은 양쪽에서 모두 설명력 있음.
- 정치적 성향은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
 - 서유럽: 우파가 유럽 회의적**
 - 중동부유럽: 좌파가 유럽 회의적**
- 사회적 지위에 관한 변수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에서 같은 방향의 설명력
 - 서유럽의 노동자 계층이 유럽 회의적, 중동부유럽은 유럽 선호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맞지 않음
 - 서유럽, 중동부유럽 모두 노동자 계층은 유럽 회의적**

	EU-28		서유럽-15		중동부유럽-11	
	전체 기간	부분	전체 기간	부분	전체 기간	부분
Age_{ic}	0.016*** (0.001)	0.007*** (0.002)	0.013*** (0.001)	0.002 (0.003)	0.019*** (0.001)	0.012*** (0.003)
$Gender_{ic}$	-0.010*** (0.003)	0.016** (0.007)	-0.015*** (0.004)	0.024*** (0.009)	-0.004 (0.005)	0.002 (0.010)
$Education_{ic}$	-0.014*** (0.001)	-0.004*** (0.001)	-0.014*** (0.001)	-0.004** (0.002)	-0.014*** (0.001)	-0.003 (0.002)
$Politics_{ic}$	0.020*** (0.001)	-0.010*** (0.003)	0.060*** (0.002)	0.007 (0.005)	-0.027*** (0.002)	-0.028*** (0.004)
$Social_{ic}$	-0.054*** (0.002)	-0.034*** (0.004)	-0.073*** (0.002)	-0.037*** (0.005)	-0.031*** (0.003)	-0.031*** (0.006)
$Voice_EU_{ic}$	0.257*** (0.002)	0.186*** (0.004)	0.291*** (0.002)	0.201*** (0.006)	0.196*** (0.003)	0.163*** (0.006)
$Current_EU_{ic}$	-0.336*** (0.002)	-0.222*** (0.004)	-0.324*** (0.002)	-0.224*** (0.006)	-0.353*** (0.003)	-0.220*** (0.006)
$Membership_EU_{ic}$		-0.439*** (0.007)		-0.444*** (0.009)		-0.429*** (0.010)
$Benefit_EU_{ic}$		-0.320*** (0.011)		-0.293*** (0.015)		-0.350*** (0.016)
Constant	2.775*** (0.011)	4.120*** (0.027)	2.652*** (0.014)	4.105*** (0.036)	2.991*** (0.017)	4.133*** (0.041)
Observations	239,544	36,492	142,627	21,224	96,917	15,268
R-squared	0.262	0.444	0.272	0.444	0.260	0.446
Country	28	28	15	15	13	13

실증분석 결과: 합동 OLS 분석(직업 더미변수)

- 학생과 자영업 전문직, 피고용 전문직, 관리직일 때 같은 조건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EU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적음.
- 반면에 **실업자와 은퇴자, 노동자**(숙련, 비숙련)는 반대로 부정적 이미지가 더 높음.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에서 공통적임.
- 자영업의 경우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에서 반대의 계수 값을 보이며,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거나, 없어짐.
- **비숙련 노동자층에서 나타나는 유럽회의주의 성향은 중동부유럽에 비해 서유럽이 더 높음.**

	합동 분석			고정효과		
	EU-28	서유럽-15	중동부유럽-11	EU-28	서유럽-15	중동부유럽-11
$Student_{ic}$	-0.255*** (0.009)	-0.232*** (0.012)	-0.277*** (0.015)	-0.290*** (0.010)	-0.304*** (0.012)	-0.236*** (0.015)
$Unemployed_{ic}$	0.085*** (0.008)	0.091*** (0.010)	0.072*** (0.011)	0.078*** (0.008)	0.082*** (0.010)	0.075*** (0.011)
$Retired_{ic}$	0.033*** (0.005)	0.030*** (0.007)	0.044*** (0.008)	0.020*** (0.005)	0.003 (0.007)	0.047*** (0.008)
$Specialist_own_{ic}$	-0.059*** (0.013)	-0.065*** (0.015)	-0.078*** (0.025)	-0.046*** (0.013)	-0.034** (0.015)	-0.070*** (0.024)
$Owner_{ic}$	0.011 (0.010)	-0.023* (0.013)	0.053*** (0.014)	0.013 (0.010)	0.007 (0.013)	0.025* (0.014)
$Specialist_employed_{ic}$	-0.116*** (0.009)	-0.162*** (0.014)	-0.052*** (0.012)	-0.063*** (0.009)	-0.114*** (0.014)	-0.031** (0.012)
$Manager_{ic}$	-0.112*** (0.014)	-0.139*** (0.017)	-0.075*** (0.028)	-0.089*** (0.014)	-0.098*** (0.017)	-0.061** (0.027)
$Skilled_{ic}$	0.032*** (0.006)	0.064*** (0.009)	0.027*** (0.008)	0.050*** (0.006)	0.067*** (0.009)	0.045*** (0.008)
$Unskilled_{ic}$	0.044*** (0.010)	0.075*** (0.014)	0.010 (0.015)	0.052*** (0.010)	0.075*** (0.014)	0.034** (0.014)
Constant	2.910*** (0.012)	2.701*** (0.015)	3.148*** (0.018)	2.892*** (0.012)	2.777*** (0.016)	3.072*** (0.019)
Observations	239,544	142,627	96,917	239,544	142,627	96,917
R-squared	0.282	0.292	0.278	0.267	0.277	0.263
Country				28	15	13

유럽회의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비교(OLS 분석 기준)

변수		서유럽	중동부유럽	비고
개인적 특성	연령	높을수록	높을수록	공통적
	성별	여성일수록	여성일수록	중동부유럽은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음.
	교육수준(기간)	낮을수록	낮을수록	중동부유럽이 더 강함
	정치적 성향	우파일수록	좌파일수록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이 반대
	사회적 지위 (자신의 평가)	낮을수록	낮을수록	서유럽이 더 강함.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1)	EU의 민주주의	만족하지 못할수록	만족하지 못할수록	공통적
EU와 자국의 상황(나아가는 방향)	EU의 방향	부정적일수록	부정적일수록	공통적
EU 가입의 효과(2)	EU 가입에 대한 평가	부정적일수록	부정적일수록	공통적
	EU 가입으로 인한 이익	부정적일수록	부정적일수록	공통적
직업	학생	유럽선호적	유럽선호적	공통적
	실업자	유럽회의적	유럽회의적	공통적
	은퇴자	유럽회의적	유럽회의적	공통적
	전문직(자영업)	유럽선호적	유럽선호적	공통적
	일반 자영업	유럽선호적	유럽회의적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이 반대
	전문직(피고용자)	유럽선호적	유럽선호적	공통적
	관리직	유럽선호적	유럽선호적	공통적
	숙련노동자	유럽회의적	유럽회의적	공통적
	비숙련 노동자	유럽회의적	-	중동부유럽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

Ch. 6

▀ 결론 및 후속 연구 방향

연구결과 요약: 거시 데이터 분석

- 첫째,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EU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서유럽(EU-15)보다는 **중동부유럽에서 더 크게 나타남.**
- 둘째, **경제성장률, 실업률**과 같은 경제변수는 서유럽의 유럽회의주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할 뿐,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다만 EU 및 자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EU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서유럽보다 중동부유럽에서 더 큰 설명력을 가짐.
- 셋째, EU 예산을 통한 지원과 **중동부유럽의 유럽선호주의** 간에는 더 이상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다시 말해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EU 예산의 수혜를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EU에 대한 여론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넷째, 중동부유럽의 산업 및 무역구조는 유럽회의주의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함.
 - 다만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낮을수록 EU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이 현상은 중동부유럽의 성장 동력이 차츰 EU 역내에서 역외로 옮겨갔고, 그 결과 EU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다소 낮아진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함.

연구결과 요약: 미시 데이터 분석

- 첫째, 유럽회의주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변수들은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에서 그 영향력이 유사함.
 -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사회적 지위가 노동 계층에 가까울수록 유럽회의주의 성향
- 둘째, 서유럽에서는 우파 성향일수록 유럽회의주의 경향이 강한 데 반해, 중동부유럽에서는 좌파일수록 유럽회의주의 경향이 강함.
 - 이러한 발견은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주로 강경우파에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의 결과
-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유럽회의주의 관련 연구와 분석의 틀은 중동부유럽에도 대체로 적용이 가능
 - EU에 대한 태도가 초국가주의와 국가 주권의 충돌(민주주의), 도구주의적 관점(이익 여부), 문화와 정체성(민족주의)과 같은 개념의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
- 중동부유럽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요인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은 정치적 담론에 관한 정성적 연구를 통해 식별, 분석
 - 특수한 현상들이 전체 통계에 묻혀 희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 중동부유럽 국가와 정당에 대해 별도의 정교한 연구가 필요함.

결론 및 시사점

-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 유럽회의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경제적 실물 변수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관해서는 설명력이 없음.**
 - EU 기금의 수혜 정도, 산업 및 무역구조는 예상과 반대로 영향을 미치거나 설명력이 낮음.
 - 반면에 EU의 '**민주주의 결핍 (democratic deficit)**'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잘 설명함.** 중동부유럽에 관한 정책연구는 EU 가입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효과, EU 예산 지원 등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음.
- 같은 맥락에서 중동부유럽은 EU 체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누렸다는 인식과 함께 중동부유럽을 유럽통합의 일부로 이해하는 시각이 지배적
- 이 연구는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오히려 **정당정치와 민족주의 부상**에 따른 **우파적 논리의 확산** 등 국내 정치의 동적 움직임 속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필요함.
-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동부유럽의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도 중동부유럽의 EU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EU 체제의 공고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안보적 이익**이 새롭게 부각 되기 때문임.

